



목욕탕 탈의실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2



이재용 부회장 "다시 디자인 혁명을" 12

코스피(12월) 2475.62 (-10.25P) 코스닥 840.08 (+0.18P)
환율(달러당 원화) 1114.80 (+4.80원) 금리(국고채 3년물) 0.969% (-0.020%p)

집값·주식 '짹짹'...탐욕이 부른 '지대추구' 덩

부동산 카페·주식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급증 '그들만의 리그'을 2~8월 불법행위 1374건... "정부 통제·문제 해결 나서야"

한국 경제가 '지대(地代) 추구의 덩'에 걸려 있다. 지역 주민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인 일부 방에서는 집값·전셋값 담합 행위 등 짹짹이 횡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주식 리딩', '부동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오픈 채팅방이 나온다. ▶관련기사 4·5면
12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8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60.3%)은 '집값 담합'이었다. 불법 행위

자는 공인중개사가 1위(461건)를 차지했다. 개인(445건)과 아파트부녀회·입주민 협의회 등 단체행위(321건)를 합치면 766건으로 두 배에 달한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나 접수됐다.
주식시장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한 사례는 45건이나 된다. 상장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등 내부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다.

지대 추구(rent seeking)
이득을 얻기 위해 부당한 활동에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면세점 특허를 얻기 위한 기업들의 과열 경쟁 등이 대표적 지대추구 행위다. 권력을 이용해 취업을 청탁하거나 경쟁에 개입하는 것도 넓게 보면 지대추구 행위다.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법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12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종목 추천방(리딩방)을 적발했다. 리딩방을 만든 다음 지분을 먼저 취득한 후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종목 추천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매

도에 부당이익을 취한 예도 있다. 리딩방을 만든 유사투자자문업자 F사는 총 138 종목에서 추천 종목을 먼저 산 뒤 단체 채팅방에 호재성 정보와 매수 지시를 공유(하루 평균 20건)해 매수세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전반에 짹짹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 activity)'가 만연해 있는 셈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개인투자자나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학에서 지대추구 행위란 특정 주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노력 없이 초과소득을 거두는 행위를 뜻한다. 한국의 부동산, 주식에 이 같은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한 이유는 뭘까.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주식에서 이익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현상은 사회가 공평·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압축 성장을 해오다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데 집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과거에는 정보가 많은 권력층이나 경제적 강자 중심으로 지대추구 행위가 일어났다. 정보가 오픈된 지금은 일반인들도 정보를 이용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생겨났다"면서 "주어진 정보나 자리로 부당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통제와 함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한진,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이동걸 산은 회장 '빅딜' 구상 한진, 3자 유증 자금 확보 유력 독과점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쳐 매머드급 대형항공사(FSC)로 재탄생시키는 항공업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사될 경우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12일 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을 한진칼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한진그룹과 접촉하며 빅딜 시나리오를 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진칼이 산은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활용하는 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이 경우 한진칼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게 된다.
산은은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3자 연합(46.71%), 조원태 회장 측(41.3%)에 이어 한진칼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돼 두 항공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효율적으로 자금 지원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른바 다음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개최해 이와 같은 방식의 인수구조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은 등 채권단은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직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HDC산은은 지난해 12월 2조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수를 미루다 결국 인수 무산을 공식화했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2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경영난으로 지난 4월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대가로 기내식 사업 매각과 1조 유상증자 등 2조원 규모의 경영 자구안을 실행 중이다.
산은은 코로나19로 항공업이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결국 항공업 구조조정은 동종업종끼리만 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다만 국내 1, 2위 사업자인 두 회사의 결합으로 독과점 우려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각자 회사 체제를 이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사가 통합되면 노선 정리 등 작업을 통해 수송객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훈장 추서식에 참석해 전태일 열사의 둘째동생 전순욱 씨 옆의 의장병이 들고 있는 추서편에 부장을 걸어주고 있다. 뉴시스

택배 노동자 심야배송 제한·주5일제 유도

당정청 '과로사 방지 대책' 내놔 내달 전국민 고용보험안 발표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심야시간의 배송 제한과 주5일제 유도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강도 근무 문제가 제기된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필수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감염 위험을 안고 대면 서비스를 해온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재 위험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1조8000

억 원을 책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필수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이 취약하다. 늦었지만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위험에 놓인 이들을 위해 건강검진, 건강보험 등 당국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에선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해소를 골자로 한 대책은 △적정 작업시간·물량 관리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주5일 작업 확산 유도 △건강보호 강화 △택배기사 처우 개선(배송 수수료 인상 검토) △산재·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을 담고 있다.

당정청은 택배뿐 아니라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보호 방안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내달 말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안을 발표한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할 것"이라며 "늦지 않은 시기에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 12월 말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이꽃들 기자 flowerslee@

스마트 건설대상 수상작 선정 ▶2면

토·일요일 신문 쉽다

文대통령·바이든 첫 통화 "韓美 방위공약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로 한반도 주변 정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련기사 8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 "7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한미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여기서



벗으면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

목욕탕이나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에서 탕에 들어가거나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화장실에서 양치질할 때와 같이 개인 위생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를 제외하고 계산하거나,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골프장에서는 공을 칠 때를 제외하고 카트를 탈 때나 이동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담배를 피울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실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등산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한다. 실외라 하더라도 500인 이상이 모인 상황이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음식점, 카페와 백화점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고, 한 달간 제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목욕탕 탈의실에서 착용 의무화
텍스크·망사마스크도 단속 대상
산책·등산, 조건부 미착용 허용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이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플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50㎡ 이상 식당·카페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여기에 거리두기 1단계 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

마스크착용의무화 Q&A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착용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는?**
망사형 마스크·벨브형 마스크, 스키프 등의 옷가지
- 장소·상황별 과태료 부과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 공원 산책, 등산 등 실외 활동**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됨
- 음식점, 카페**
음식·음료를 섭취할 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 야외 근무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됨
- 흡연 시**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됨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
물속·탕안을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는 '텍스크'와 망사형·벨브형 마스크, 스키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위반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도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이 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한화큐셀,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

합천댐에 연내 착공... 年 6만명 사용 가정용 전기 생산

한화큐셀이 경남 합천에 세계 최대 규모 의 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한화큐셀은 댐에 설치하는 규모로 세계 최대이자 국내 인허가가 완료된 수상태양광 발전소 중 최대인 41MW(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경남 합천댐에 건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한화큐셀이 올해 8월 한국수자원공

사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이달 4일 최종 개 발 승인이 완료돼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육상태양광 기술과 부유식 구조물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형태다. 수상태양광은 유희부지인 수면을 이용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육상태양광보다 그림자 영향이 적고

모듈의 냉각 효과가 있어 발전량이 10% 높 게 나오는 장점이 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약 6만 명이 연간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합천군 인구 4만4434 명이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

한화큐셀은 합천군의 군화(郡花)인 매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이는 발전소 소재지인 합천군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향후 재생에너지 견학과 관광지 활용까지 염두에 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2020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 : 11월 18일 오후 2시~3시 30분 | 이투데이 빌딩 eTRAKON(1F)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0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이 18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 본사에서 열립니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 아파트 단지가 종합대상(국토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쌍용건설(산업혁신대상)과 펌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일자리 우수기업 대상), 한화건설(동반성장 우수 대상)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동반성장위원회상을 수상합니다. 이와함께 9개 건설사가 부문별 대상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수상기업 및 작품

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대림산업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			
일자리우수기업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주말코딩 D.O링 건축사사무소 상생 경영 우수 알파디점	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쌍용건설 건설기술	동반성장우수대상 (동반성장위원회)	한화건설 협력사 상생 추구
브랜드 대상	대우건설 청라 푸르지오 리피노	조정 대상	HDC현대산업개발 일계센터몰이피크	사회공헌 대상	GS건설 사회공헌
친환경 대상	SK건설 구미 연료전지 제조공장	해외건설 대상	현대건설 카타르 루시말 티워	주거정비 대상	포스코건설 개포우성
설계혁신 대상	롯데건설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커뮤니티 대상	금호산업 경산 하양 금호아울름	주거혁신 부문대상	SH공사 위례지구 18단지

- 주최 : 이투데이
- 후원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동반성장위원회·대한 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한국 부동산개발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문의 : 스마트 건설대상 운영사무국(02-799-2600)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장애인고용 30년, 함께 하는 도약! 1990-2020

☎ 1588-1519 www.kead.or.kr

권고에 그친 분류작업·산재가입... '갑질방지'엔 한계

'택배기사 과로대책' 내용·반응

정부가 12일 심야배송 제한, 주5일 근무제 확산, 분류작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를 해소할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논의가 진척돼온 원정(택배업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의무화, 산재보험 적용 제외(미가입) 완전 폐지 추진 등은 후퇴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원정의 책임 부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이용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택배 업무가 가중된 택배기사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택배기사의 1일 평균 작업시간은 12.1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주40시간 기준 1일 8시간)보다 길다. 일요일·공휴일 외엔 휴무가 없다. 질병 등의 상황에도 별도의 휴가 없이 일하고, 고용·산재보험 안전망에도 취약하다. 1일 평균 작업량은 250건(배송 및 분류업무)에 달하는 등 작업 강도 또한 상당하다. 열악한 근무

정부 "수수료 인상 등 처우개선 검토" 노조 "표준계약서로 분류작업 전가 원정 책임 덜고, 기사 부담 유지된 꼴"

무환경에 올 들어 10명의 택배기사가 업무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이를 막고자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해 제한토록 택배업체에 권고한다.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도입 확산을 당부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을 수렴해 명확화·세분화하고, 이를 표준계약서(내년 상반기 마련)에 반영해 개선할 방침이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수료 인상도 검토한다. 지난해 기준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배송 수수료가 하락할수록 택배기사는 소득 유지를 위해 배송을 많이 해야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주요 내용

과로 예방 제도 개선

- 1일 최대 작업시간 기준 마련 - 택배사별 여건 고려해 결정
- 물량조정 시스템 구축
- 주간 택배기사 심야 배송 제한 - 오후 10시 이후 배송 제한 - 오후 10시부터 업무용 앱 차단 방안 검토 중
- 주 5일 작업 확산 - 택배기사 토요일 휴무제 도입
- 분류작업 개선 - 노사 의견 수렴해 명확·세분화

사회안전망 확대

※ 출처: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확대
- 고용보험 적용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 백마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배송 1건당 600원 수준
- 불공정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일자리 질 개선 기반 마련

- 택배가경 구조개선
- 인프라 확충 및 자동화 설비 지원



한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강요 문제 해소를 위해 원칙적으로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하고,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대책이 시행되면 택배기사들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은 아쉬움이 많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는 환영할 일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사안이 많이 후퇴돼 유감스럽다"며 "분류작업의 경우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이 원정에서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해 기사들에게 분류 일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정부는 강제성 없는 표준계약서에 노사 간 분류작업 분

담을 규정하는 것은 원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당에서 강조해온 산재보험 적용 제외 완전 폐지도 요원해졌다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산재보험의 원정 책임임을 부각시키면서 적용 제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원정에 부담 없이 대리점과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꼬집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교촌, 증시데뷔 '상한가'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주)가 코스피 상장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상장 기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촌에프앤비 '치킨경쟁' 뚫고 날았다 '프랜차이즈 직상장 1호' 대박비결은

가맹점 보호 위해 출점 제한 체계적인 점주 지원 등 호평

'6억5000만, 50, 242, 4300'.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코스피 직진출에 성공한 교촌치킨을 상징하는 숫자들이다. 교촌은 지난해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 6억 5000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업종 평균을 3배 이상 상회했다. 소비를 주도하는 MZ세대 가맹점주 비중은 전체의 50%에 달한다. 본사 임직원 수도 치킨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은 242명이다. 본사 직원 수는 점주들을 지원할 인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가맹점 매출과 본사 매출 규모만으로는 교촌치킨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지만 매장 수는 업계 3위 수준이다. 매장 수가 곧 본사 매출로 직결되는 프랜차이즈 구조상 매장 수 3위가 본사와 가맹점 매출 1위에 올랐다는 것은 점당 효율이 높다는 방증이다. 올해 교촌은 치킨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로 4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증권사가 분석한 교촌치킨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4300억 원이다.

12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날 공모가(13만 5000원)의 193%인 2만 3850원에 장을 시작해 상승제한폭인 7150원(29.97%) 오른 3만 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교촌에프앤비가 증시에 화려하게 입성

하며 그동안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경험한 '증시 잔혹사'를 극복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촌은 일반적 프랜차이즈와는 확연히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 2~3년 전부터 상장설의 주인공으로 대두됐지만 롯데그룹 2인자인 소진세 회장이 취임하며 대기업 시스템을 접목, 가맹점 인프라를 재정비하며 착실히 상장을 준비해왔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꼽는 교촌의 경쟁력은 △MZ세대 가맹점주의 높은 비중 △높은 가맹점 평균 매출 △상권 보호를 위한 출점 원칙 등이다. 교촌의 2030 가맹점주 비중은 50% 이상이다.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2030 비중이 높은 BBQ나 굽네치킨보다도 5~15%포인트 높다.

교촌의 가맹점 평균 매출이 높은 이유는 출점 전략 때문이다. 교촌은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인구 1만 7000~2만 3000명당 1곳 출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촌은 페리키나, 처갓집치킨과 매장 수는 비슷하지만 점포당 매출이 3~5배 높다.

이상현 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교촌치킨은 오픈키친 도입 매장을 늘려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홀 서비스 매장을 확대해 배달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점당 매출을 높이는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왔다"며 "본사가 출점 전략을 지키고 상생 의지를 실행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맹점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계 최초

병원 내 키오스크
실손 보험금 간편 청구 시스템

업계 최초

GPS 기반 긴급출동기사
실시간 위치 안내 서비스

업계 최초

보험안내
모바일 통지 서비스

모두가 디지털을 이야기할 때,
KB손해보험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고 도전하는
탐험가의 최초 정신으로
오늘도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아는 보험에서
디지털을 하는 보험으로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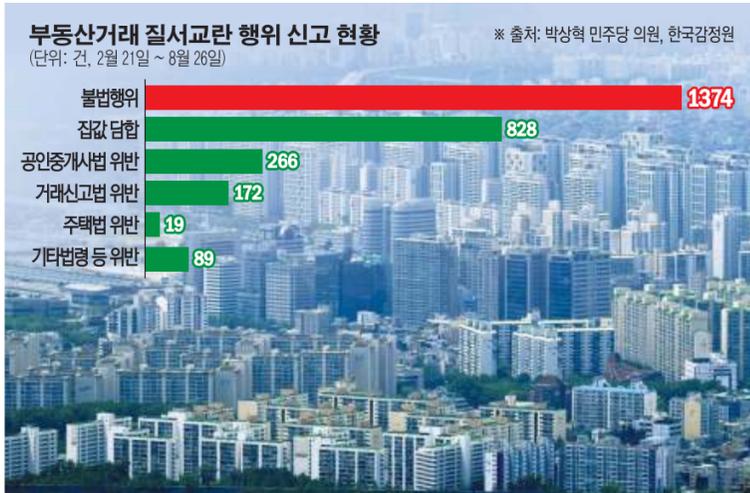
집 사자마자 1억 올려 매물로... 집주인 도 넘은 ‘탐욕’

아파트값 띄우기 광풍

부동산 혼란 틈타 ‘한몫 챙기기’ 커뮤니티·SNS “호가 높여라” 싼 매물 중개업소 ‘블랙리스트’ 주민들 공유하며 조직적 왕따

최근 회사 발령으로 연말께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 올 예정인 김모(41) 씨는 근무지가 가까운 서울 잠실 일대에서 아파트 매물을 찾아 나섰으나 좀처럼 계약을 못하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추천한 매물에 대해 몇 차례 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그때마다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가격을 5000만~1억 원씩 올린 탓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요즘 서울 집값이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이 실제로 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이모(38) 씨는 “집주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할말을 잃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커뮤니티 운영진이 ‘호가 높이기’를 공공연하게 부추기고, 공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를 산 지 얼마 안 된 분이 1억 원 정도 높여 포털에 올렸더라.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다 같이 사는 세상에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걱정했다.

12일 부동산업계 취재결과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진 가운데 집주인들의 이른바 ‘배짱 호가’, ‘매도가 짹짹미’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집값이 불안해진 분위기를 이용해 아파트값을 최

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기존 카페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다. 대형 부동산 플랫폼 일색이던 온라인 중개매물도 중고거래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번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 단지에 최근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붉은색 바탕의 현수막이 등장했다. ‘아파

트 가치 정상화 캠페인’이라면서 허위매물, 저가매매 유도, 가두리 영업을 퇴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우리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 10여 개가 걸렸는데, 집주인 인증 거부·허위매물 등록·거래완료 미표시 부동산 퇴출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개월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는 모두 1374건으로 이 중 ‘집값 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 외엔 거래신고법 위반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 89건을 기록했다. 지난날 집값 상승기에 부녀회를 중심으로 담합행위가 벌어졌다면 지금은 지역·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집을 싸게 파는 이나 중개하는 업소 ‘블랙리스트’를 만들

어 주민끼리 공유하고, 시세로 매물을 올리면 ‘허위 매물’로 신고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 등 중개업소들을 압박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불법행위 주체로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위로 4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33.6% 수준이다. 이어 개인(445건)이 2위,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321건)가 3위를 차지했다.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 접수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조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에는 실입주 인증받은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담합은 서울 강남권이나 목동 등 집값이 높은 지역들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수도권 단지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런 현상은 주로 집값 상승기에 자주 일어나는데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장에서 자정작용을 거쳐야 하고 지자체 등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 등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정부가 개입, 과세·분배정책 통해 불평등 바로잡아야”

경제 주체 지대타파 필요... 싱가포르 ‘공공토지임대’ 참고를

경제가 어렵다는 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저성장 시대에 경제 주체들의 관심은 지대추구로 쏠리게 된다.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우선 순위가 ‘건물주’인 것도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를 그대로 투영한다. 한번 부동산을 소유하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대대손손 지대를 누릴 수 있어서다. 지대추구는 기득권이 곧 불평등의 고착화인 셈이다.

지대추구가 만연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적 지대를 부수는 과정이 필요

하다. 경제학자들은 지대추구 해결책으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지대추구 타파는 경제 시스템을 개선해 정부, 민간 분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2018년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방한 후 한 포럼에서 “북유럽 국가들처럼 과세 및 분배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년 노벨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역시 “지대추구를 방지하려면 이

익에 세금을 매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대추구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에는 좌파, 우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다. 우선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이 지대타파의 기본이다. 물론 진입장벽을 없애는 건 어려운 일이다.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기득권 세력은 홍보·로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인허가 제도, 설립요건 등 각종 제한이 그어진 이유 역시 표면적으로 타당하게

설득한다.

우선 진입장벽은 법령 등 사업 제한 조치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융, 의료, 보험 등 전문 서비스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인데, 인허가제도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킨다. 불공정 경쟁 주체로는 대기업이 누린 지대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내 많은 기업은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정책금융, 자금공급 등 직접적 지대 수혜를 누리며 성장했다. 최근 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가격을 내지 않거나 ‘갑’의 위치에서 일을 지시하며 지대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효성

이 낮은 법인세를 역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도 지대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주도로 높은 과세와 높은 복지를 구현하면서 독자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었다”며 “특히 토지의 경우, 국가가 매입하고 공공토지임대 방식으로 시행해 지대추구를 영원히 차단하면서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을 독점점 구조로 가져가면, 구성원 간 소유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면, 결국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기”라고 꼬집었다. 이인아 기자 ljh@

아시아 유일!! 국내 최초!!
DNA 헬통분석 서비스

그것을 아십니까?
한국인이라도 다양한 인종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Meet you All

Designed by B-forbrand
www.b-forbrand.com

2020 레드닷 어워드 수상
Red Dot Design Award

2020 펜타워즈 브론즈 어워드
Pentawards Bronze Award

1. 유후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에서 개발한 DNA 분석서비스로서 나의 DNA와 6대륙 22개 인종 95개 국가 인종의 DNA와 비교 합니다.
2. 나의 무게 7개그룹, 무게 12개그룹의 유전적 혈족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내 전체 유전체 기업 중 유전자 헬통분석이 가능한 기업은 EDGC가 유일합니다.

제품상담 : 032-713-2128 | 구매문의 : www.youwho.co

Cell-free DNA기반 토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 토탈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Cell-free DNA(세포 유리 DNA) 분석기술 기반, 질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는 최첨단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사모펀드 사태, 전형적 ‘금권유착’... 감독당국도 책임

금융당국 관리 부실의 폐해

한진중공업.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예비입찰에 성공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처지다. 부산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한진중공업조선부문은 방산업체로서 군함과 LNG선 등 특수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선박 수리 등에서 기술경쟁력이 높다”면서 “한진중공업 매각을 단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한 축인 조선업 회복과 지역 경제 관련 종사 고용 유지 관점에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지난해 5월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를 선정했다. 롯데카드 노조는 사내에 공고한 입찰문에서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경영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롯데그룹은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가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실 등을 이유로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를 우리은행·MBK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전격 교체했다.

최근 사모펀드가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시장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사모펀드는 특정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기업 인수 후 투자 없이 고가 매각 자본주의 탐욕의 화신으로 전략

고액 자산가·정계 인사 끌어들이 정보 수집·제도 개선 등 짬짜미 시민단체 “근본 대책 없인 재발”

해 경영권 인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한 후 자본 이득을 취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자는 주로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이다.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모펀드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을 인수한 다음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공장 매각 등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투자도 안 하면서 단기 실적을 올린 뒤 비싸게 팔아치우는 행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에 ‘자본주의 탐욕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사모펀드에 미운털이 박힌 데는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와 무관치 않다.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1100명의 피해자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에서 ‘펀드 사기 카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진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

발생한 옵티머스 사기 사건(피해 규모 5000억 원)이 이를 방증한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

장에게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운용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작심하고 펀드를 설계했다는 혐의가 짙다. 초호화 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곳곳에 등장하는 한양대 인맥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의혹은 여전하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아내를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의

로 근무하다 사건이 터진 뒤 사표를 냈다.

이른바 ‘전주(錢主)’라 불리는 개인 자산가나 큰손, 금융감독당국의 관리부실이 만들어낸 암묵적 짬짜미 역시 ‘지대추구’ 행위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돈을 가진 세력이 정치인을 끌어들이 자신의 기득권에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거나 만드는 금권정치 한 형태다. 이는 국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공정한 경쟁과 혁신 대신 금권을 이용한 지대추구에 더 많은 자원이 몰리도록 만든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은 현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번에도 근본적 제도 개선과 철저한 금융감독이 이뤄진다면, 유사 사건은 몇 번이고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이는 사모펀드의 전체 모습도 아닐뿐더러 왜곡된 측면이 강하다”고 항변한다. 사모펀드가 벤처·혁신 기업들에 대한 건전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유해림 기자 wiseforest@

개미 울리는 ‘큰손의 유혹’

SNS 유언비어 유포 등 시장 교란 일반 투자자 현혹 부당이익 편취

지난해 화제가 됐던 영화 ‘돈’(감독 박누리)은 매일 7조 원대 거래대금이 오가는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는 A증권사 직원이 B사 직원과 공모해 주가 변동성이 큰 ‘세 마녀의 날’(주가 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개별주식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틈타 특정 가격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전에 공모해 특정 가격과 시기에 매매를 하는 ‘통정(通情) 매매’다. 예컨대 A증권사와 B증권사가 짜고 C주식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통정거래하면 시장에선 이를 시세가 오른 것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오류세를 보고 매수에 나선 제3자라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투자자라면 한 번쯤 ‘시장은 현실과 얼마나 같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궁금증을 갖는다. 증권가 관계자들은 “주식시장 작전 세력은 스크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른바 들어도 아는 ‘요주의 인물’이 현실에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실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불공정거래 사건 7건과 관련해 개인 22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수법으로는 위장 매매, 매매 유인 목적 행위, 시세의 고점 및 안정 행위, 연계 시세 조정 등이 이용된다. 쉽게 실제 있지 않은 주문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수 주문을 내거나, 통정 매매를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이 주요 수법이다. 과거 주요 경로는 주식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게시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결국 개미(일반 투자자)의 눈을 현혹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대표적 수법이다. 시세 조종은 주가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간혹 내리기 위한 작전에도 사용된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기

3대 불공정거래 내부자 관여 현황

(단위: 건, 억 원)

	불공정거래	내부자 관여	부당 이익액
2019년	68	50	2413
2020년 1~8월	41	27	3133
합계	109	77	5546

* 출처: 박광은 의원실·금융감독원

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킨다. 작전은 천차만별이다. 3명이 할 수도 30명이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보통의 큰 그림을 그리는 ‘주포’, 돈을 대주는 ‘전주’,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는 ‘기술자’, 해당 주식의 ‘대주주’가 필요하다. 덩으로 정보를 흘려주는 역할에는 애널리스트와 기자 등도 꼽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대(rent)를 발견·포착하고 챙겨가는 사람들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지대를 추구하려는 큰손이나 대주주들·정치 세력들은 자신이나 투자자들의 점심값을 다른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협하는 법률이나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소위 ‘지대채취(rent extraction)’에도 관여한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보다 정책 효과를 상징적으로 선전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 조작·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10건 중 7건의 뒤에는 임원과 주요 주주들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5000억 원이 넘는다.

큰손들의 지대추구 끝은 결국 개미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특히 올해는 대거 유입된 동학개미가 유동성 장세를 이끌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해림 기자 wiseforest@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수수수료는 0.066%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편안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9-62호(2019.02.28)

<1등급>

환경오염 피해자 보상 길 열려... 요양수당 月 142만원

환경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증상·합병증 등 4가지 평가 질환 특성 반영 5등급 체계 지급 기준 중위소득 100%

환경오염으로 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위한 등급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상향돼 1등급의 경우 5년간 매월 14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1227만 원, 511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신체 훼손 등 산업재해의 장애등급을 준용해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개편이다.

먼저 등급 산정방법을 위한 중증도 평가에는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에 정기간 등 4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또 각

피해 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도 평가 점수' 계산식을 활용해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등급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 질환들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에서도 피해자 한 명이 수중에서 수십 종의 질환을 보유해 총 53종의 환경오염 피해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간 이들 질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개편되는 피해등급 체계는 기존 산업재해의 장애등급 14등급 적용에서 '5등급 및 등급외'로 구성하고, 각 등급은 새롭게 도입된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출해 분류한다.

이어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요양·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도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에 맞게 개편된다.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곱해 산출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률은 기존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하고, 중간 등급

은 이 사이에서 순차적인 적용을 받는다.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도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 수준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2000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227만6000원과 511만2000원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도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에 맞게 개편돼 올해 기준으로 최대 4023만 원이 지급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네이버·카카오 대표 만남 정 총리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삼성동 총리관에서 열린 'D·N·A시대 변화와 갈등, 우리의 대응은?'이라는 주제의 제24차 목요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수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규제 사각' 오너家 회사 내부거래 여전

규제 회사의 3배...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시급"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가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각지대 회사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수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들 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가 12일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2019년 12월 말 기준)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6곳(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 또는 20% 이상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전체 거래금액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1.0%포인트(P) 증가했다. 삼성, 현대차, SK 등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

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6.3%P·1조2000억 원)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모두 감소(-0.7%P·-8000억 원)했다.

사각지대 회사(343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26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줄긴 했지만 규제 회사(8조8000억 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800억 원)가 규제대상 회사(500억 원)보다 많았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규제대상 회사(11.9%)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현대글로벌비스, (주) LG,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간발의 차로 규제에서 벗어난 총수 일가 지분율 29~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허리 튼튼한 경제 실현"... 강소·중견기업 키운다

'월드클래스300' 1.5조 투자 10년 내 경제기여도 30%로

정부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실현을 위해 강소·중견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군의 경제기여도를 현재 20%대에서 2030년 3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강소·중견기업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의 주역이지만, 성장이 정체됐다.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해마다 10개 안팎에 불과하며,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한 혁신기업 출연도 둔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매출, 수출, 일자리 등 경제기여도를 30%대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우선 중견기업이 전통 사업과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혁신제품 개발, 수출판로 개척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과 우수기업연구소(ATC) 사업을 확대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이 높은 상품은 '혁신제품'으로 선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장려하며,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도 늘린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기업을 현재 698개에서 1000개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게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D 협력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2024년까지 100개 신사업 협력모델도 발굴 예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첫 관문인 '매출 100억 원' 돌파의 허들도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95%는 매출 100억 원 미만으로, 매출액이 올라 중견기업으로 가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자금 지원을 올해 8300억 원에서 내년 1조15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환율·유가 하락에 수출물가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수입물가 9 달째 내림세

원화값이 급등(원·달러 환율 하락)하고 유가와 반도체값이 떨어지면서 수출물가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수입물가도 9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고 낙폭도 키웠다. 현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수출입물가 하락압력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수출물가는 전년 대비 2.6% 하락했다(원화 기준). 이는 2018년 12월(-2.8%)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수입물가도 전월보다 2.6% 내렸다. 9 달 연속 하락세이며, 4월(-5.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데다, 국제유가와 반도체값이 떨어진 영향이 크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데다, 국제유가와 반도체값이 떨어진 영향이 크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데다, 국제유가와 반도체값이 떨어진 영향이 크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데다, 국제유가와 반도체값이 떨어진 영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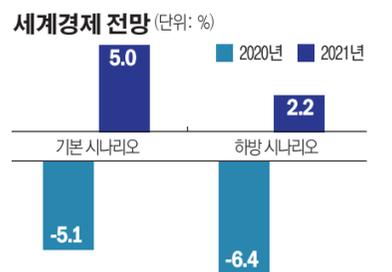
2.0% 떨어져 배럴당 40.67달러에 그쳤다. D램값도 8.5% 떨어져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또 작년 7월(-14.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11월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11월 들어 10월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29.6원으로 전월평균치 대비 1.3% 하락했다. 두바이유도 39.95달러로 전월보다 1.8% 떨어졌다. 반도체 가격도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대외경제연구원 "내년 세계 성장률 5% 전망"

코로나19 재확산 땀 2.2%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내년 세계경제가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3%포인트(P) 감소한 -5.1%다. 이는 5월 전망과 비교해 2.5%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12일 '2021년 세계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2분기 큰 폭의 경기침체 이후 3분기부터 다소 회복세를 보이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 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는 5월 전망 -2.6%에서 -5.1%로 2.5%P 대폭 하향 조정했다.

KIEP는 특히 백신 개발·보급 지연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IEP는 내년은 올해보다 10.1%P 상승한 5.0%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내년 중반까지 코로나 백신이 공급

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지속한다는 전제에서다.

KIEP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주요국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및 방역 조치를 시행, 실물 및 금융부문이 동시에 위축되는 하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기존 시나리오 대비 올해는 1.3%P, 내년엔 2.8%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수출 및 경기 회복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공급과잉 해소로 2020년에 비해 상승할 것이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회현별곡

- 회현동 역사탐방 브이로그
- 역사문화 콘텐츠 전시
- 거점 시설 주민 참여 프로그램
- 주민 트롯 영상 경연대회
- 온라인 댓글 이벤트

종림만리

- 종림만리 푸드쇼
- 러닝토크쇼
- 버스킹 공연
- 주민 트롯 영상 경연대회
- 온라인 댓글 이벤트

낭만서계

- 어고잉 토크콘서트
- 어고잉 런웨이쇼
- 청파언덕 골목 영화제
- 주민 트롯 영상 경연대회
- 온라인 댓글 이벤트

*** 서울로 잇다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文 “한반도 평화” 요청에… 바이든 ‘中 고립’ 동참 압박

바이든 “인도·태평양 평화” 강조 반기문 “비핵화돼야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에서 축하와 덕담을 주고받는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문제로 바라봤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을 등 주변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염두에 둔 듯했다.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공감대를 이룬 점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을 공통분모로 삼아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할 공식은 다소 달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 남북에 국한된 해법으로 접근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라는 말 대신 ‘인도·태평양’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은 지리적·생물학적용어로도 쓰이지만, 미국이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로 중국을 포위해 고립시키는 전략을



한국전 기념비 찾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향군인의 날인 11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기념비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FP/연합뉴스

일컫기도 한다. 안보를 경제에 연계해 중국을 봉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역할을, 바이든은 중국 문제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하던 ‘핵심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그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문 대통령에 앞서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도 똑같이 ‘인도-태평양’을 언급했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밑그림이 드러난다. 일본 언론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샌카우얼도 적용에 대해 확약

(commitment)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에 미·일 안보조약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무력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도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번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강조했던 ‘종전선언’ 언급이 없었던 점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바이든 당선인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군 사훈련 중단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똥다운’ 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 기준 강화, 마·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라며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 요인이자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김종인, 윤석열과 선긋기 “野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선을 그었다. 임기가 남은 만큼 총장 임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여론조사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의 결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전날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심판해 준 여론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꼭 지켜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윤 총장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 가장 돋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윤 총장을 향한 공세가 오히려 윤 총장을 도와준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까진 윤 총장과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다. 그는 “윤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야권 대표 주자로 내세우긴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특히 윤 총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이유를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의 결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총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며 윤 총장의 선호도가 높게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를 끝난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윤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 내에서 윤 총장 정도로 확실하게 자기 소신 있게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지지도가 높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문 대통령,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신남방 플러스’ 발표

포괄적 보건의로·비전통 안보 협력 등 7대 전략 담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포괄적 보건의로 협력과 인적교류 확대,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등 7대 전략 방향을 담은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열린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3년 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에 코로나19 등 변화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신남방정책을 고도화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고 포괄적 보건의로 협력을 비롯한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로 요약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했다.

7대 전략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로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공동번영의 미래산업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등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의제 및 마무리 발언 등 2차례의 발언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동북아 역내 국가 간 방역·보건 협력 등에 관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아세안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핵심 외교 대상인 아세안과의 외교 지평을 다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장려의 '빅데이터 서비스' 보유 시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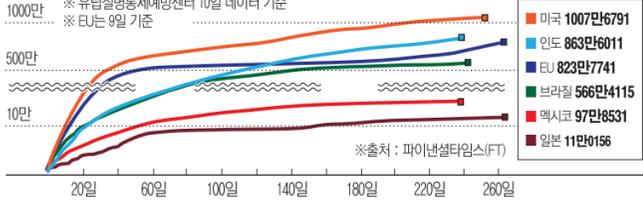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장구, 열bilder, 도매인)

주요국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단위: 명)



‘악화일로’ 코로나 백신만 ‘학수고대’

독감시즌 겹치며 재확산 비상 유럽·美 등 각국 백신확보 사활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의료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이동 제한과 모임 금지 등 재봉쇄 조치가 나섰지만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독감 시즌까지 다가오면서 이제 믿을 건 백신뿐인 처지에 내몰렸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드오미터 기준, 이날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241만7409명, 사망자 수는 128만87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럽에서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 각국이 비상에 걸렸다. 영국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누적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영국의 신규 사망자는 전날보다 60명 증가한 595명으로 5월 초 이후 가장 많았다. 누적 사망자는 5만365명으로 미국과 브라질, 인도, 멕시코에 이어 다섯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국가가 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리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위해 모두가 정부 지시를 따라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유럽의 진앙지였던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2월 중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약 9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누적 사망자 수도 4만2953명에 이른다.

러시아는 하루 사망자가 43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인구

1100만 명인 벨기에도 사망자가 1만3000명을 넘어섬에 1000명 중 1명꼴로 감염됐다.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석달 만에 1500명을 넘어섰다.

미국도 바이러스가 무섭게 번지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존스 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미국의 이날 하루 확진자는 20만1961명을 기록, 일주일 만에 두 배로 폭증해 누적 확진자는 1023만8243명이 됐다.

코로나19의 거침없는 확산에 각국은 방역 조치 강화에 돌입했다. 미국 뉴욕주는 고강도 제재에 착수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사적인 실내 모임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밤 10시 전까지 술집과 식당, 헬스장의 문을 닫도록 했다. 뉴욕 주민들은 자택에서도 10명 이상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각국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을 최대 3억 회분 공급받기로 했다. 9일 화이자는 개발 중인 백신의 코로나 예방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 라이브에 출연해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백신도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두 번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모더나는 3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와 비슷한 시험을 진행,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제약사 경영진, 이 와중에 ‘한탕’

모더나 이어 화이자 CEO 등 자사주 매각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감에 시장이 열광하는 와중에 관련 제약사 경영진이 잇따라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매각해 ‘한탕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이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9일(현지시간) 자사주 13만2508주를 주당 평균 41.94달러에 매각해 약 560만 달러(약 62억 원)를 손에 넣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같은 날 화이자의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샬리 사스만도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180만 달러 어치를 팔아 치웠다.

화이자는 9일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임상시험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해 당시 주가가 장중 최대 15%까지 폭등했

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향후 주가가 더 오를 것이 분명한데 경영진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어드의 브라이언 스코니 애널리스트는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직접적으로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간주돼 기업들이 가격 설정을 자유롭게 하기 힘들다. 또 많은 업체가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 임상 3상에 들어간 곳만 11곳에 달해서 화이자 특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지난 5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초래한 변동성 속에서 기업 임원이라면 적절하게 처신할 것을 요청한다”며 “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의혹을 사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광군제’로 83兆 벌고, 시총 70兆 날린 알리바바

중 전자상거래 규제 시그널에 주가 급락… ‘엔트그룹 IPO’ 무산 영향도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광군제(싱글데이)’ 쇼핑 축제 기간에 83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웃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시가총액 약 70조 원이 날아간 탓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자회사 엔트그룹의 기업공개(IPO) 무기한 연기가 발목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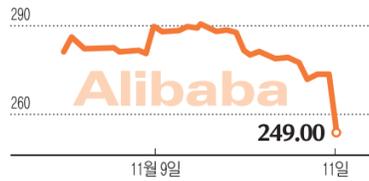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에 역대 최고인 740억 달러(약 82조4878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광군제는 1차(1~3일), 2차(11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더블데이’였던 만큼 매출 규모도 지난해(371억 달러)의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11월 11일 하루 매출만 집계한 반면 올해는 1일부터 11일까지를 모두 합산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소비자들이 식료품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보복소비’를 한 영향이 컸다. 광군제 덕에 알리바바 경쟁업체인 징둥닷컴도 같은 기

알리바바 주가 추이

(단위: 홍콩달러, 홍콩증시 기준) ※출처: 구글파이낸스



간 매출이 409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런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콩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9.8% 급락하며 시총도 4869억 홍콩달러(약 70조 원) 넘게 증발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가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 초안을 발표한 까닭이다. 규제당국은 지난주 상거래, 인터넷, 세금과 관련된 부처들을 불러모아 27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알리바바를 비롯해 텐센트와 바이두, 핀두오오 등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CNN은 “규제당국이 단속 시그널을 보내자 알리바바와 징둥, 텐센트, 메이판디엔핑 등 4개의 중국 기술주에서 총 25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정부 지침은 아직 초안이지만, 규제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 참가자들 역시 규제 당국의 발표를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알리바바가 다른 업체에 비해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에 타깃팅된 제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규제 지침 하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알리바바의 주가가 휘청인 또 다른 이유는 핀테크 자회사 엔트그룹의 상장 무산과 관련 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지난 달 24일 상하이 와이탄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중국 규제당국과 은행권의 역할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후 규제 당국의 임원진 호출과 함께 엔트그룹이 IPO를 무기한 연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마윈이 중국 정부에 밉보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번지면서 알리바바의 주가에 하락 압력을 주고 있다. 엔트그룹이 상장 연기를 발표한 날 알리바바 주가는 8.13% 하락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비장’과 ‘비참’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현화식에 참석했다. 대선 패배 후 나온 만의 첫 공식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 후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지만, 트위터로 부정 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았다. 알링턴/AP연합뉴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봐도 된다고?” 혼다, 세계 첫 ‘레벨3’ 자율車 출시



혼다의 고급 세단 레전드. 혼다는 연내 출시할 레벨3 새 모델에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기술 ‘레벨3’을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 혼다 웹사이트

일본 혼다자동차가 세계에서 최초로 인간의 조작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11일 니혼게이지사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혼다는 이날 ‘레벨3’의 고급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고급 세단 ‘레전드’ 새 모델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이날 혼다 레전드가 레벨3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승인했다. 양산 차종에 대한 레벨3 적용을 국가가 승인한 것은 세계에서 혼다 레전드가 최초로, 앞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차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기술 분류 단계는 사람만 운전하는 ‘레벨0’을 제외하면 레벨1~5로 나뉘어 있다. 현재 신차 대부분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은 자동 브레이크와 차선 유지 등 레벨

1이나 2가 적용됐다. 레벨3부터는 자동차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운전을 수행해 본격적인 자율주행으로 볼 수 있다. 레벨3는 일정 조건에서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의 운전 조작을 시스템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성이 인가한 레전드는 혼다가 새롭게 개발한 자동항법장치인 ‘트래픽잭파일럿’을 탑재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정체돼 있거나 정체에 가까운 상황에서 차량 속도나 날씨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시스템이 앞차를 따라 주행하면서 운전대와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한다. 긴급 시에는 인간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지만, 전방을 신경 쓰지 않고 스마트폰과 TV를 시청할 수 있다.

다른 업체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요타는 올겨울 ‘렉서스’ 최상위급 세단인 ‘LS’ 신모델에 레벨2이기는 하지만,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운전할 수 있는 ‘핸즈오프’ 기능을 도입한다. 닛산은 향후 출시하는 신차에 대해서는 레벨2에 상당하는 ‘프로파일럿’을 표준 장착할 방침이다.

독일 아우디는 레벨3 기술을 양산 모델에서 실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과 미국 등에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닛케이에 레벨3 자율주행을 둘러싼 경쟁에서 일본은 제도적으로 앞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전관 예우’ 특혜 논란에… 차기 금융협회장 인선 포류

손보·서울보증 수장 官 출신 내정 정치권 “관리·감독 제대로 안 돼”

은행연합회장직 고사한 최중구 “업계 출신 인사가 맞는 게 옳아”

정치권이 금융권에 만연한 ‘전관 예우’ 특혜성 인사를 지적하자, 차기 금융협회장이 포류하고 있다.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관(官) 출신 인사가 회장직을 고사하는 등 인선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권에 만연한 전관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손해보합협회장으로 내정된 것과 지난 6월 퇴직한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서울보증보험(SGI) 대표직 응모한 것을 놓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모든 사기업이나 협회가 기관에 유리한 관련 공직자를 모셔가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며 “하지만 4년 뒤, 5년 뒤 내가 갈 수도 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그러면 공무원 재취업 심사는 왜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분들을 모셔간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나도 수출입은행장을 했는데 수출입은행 직원이 거래 기업을 가는 건 맞지 않겠지만, 금융위에서 30년 일했다고 해서 죄를 지는 거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1일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 전 수석부원장의 SGI서울보증보험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것을 재차 문제 삼았다. 서울보증대표이사 후보추천 임원추천위원회(임추

위)는 10일 유 전 부원장과 김상택 현 서울보증 사장 등 2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한 뒤 유 전 부원장을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서울보증은 13일 이사회를 열어 유 전 부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고 이후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생명보험협회장 자리도 관 출신 인사가 유력시되면서 관피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8일 1차 회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추위에서는 향후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일정과 후보추천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차기 생보협회장에는 진용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현재 진 전 원

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피아 논란 속에 차기 은행연합회장 인선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유력 후보자였던 최중구 전 위원장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에게 “차기 은행연합회장 자리에 생각이 없다. (은행연합회장이) 기본적으로 은행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업계 출신 인사가 맞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고사의 뜻을 밝혔다.

이사회는 다음주 2차 회의를 열고 롱리스트를 확정한다. 이후 숏리스트(최종 후보군)가 정해지면 차기 은행연합회장은 22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통상 연합회장 최종 후보군은 단독 후보를 통해 결정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김법근 기자 nova@



웰컴금융그룹은 마케팅 전문회사 퍼포먼스바이TBWA와 손을 잡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동반성장프로그램 ‘더 그로스(The Growth)’를 공동으로 출범했다. 왼쪽부터 이수원 TBWA코리아 대표, 오승환 웰릭스캐피탈 대표, 김형태 퍼포먼스바이TBWA 대표. 사진제공 웰컴금융그룹

웰컴금융, 中企·스타트업 동반성장 앞장

퍼포먼스바이TBWA와 협업

웰컴금융그룹은 마케팅 전문회사 퍼포먼스바이TBWA와 손을 잡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웰컴금융그룹과 퍼포먼스바이TBWA는 투자금융회사인 웰릭스캐피탈과 퍼포먼스바이TBWM, 글로벌독립광고기업인 TBWA코리아를 통해 SME(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협업 프로그램 ‘더 그로스(The Growth)’를 공동 출범시켰다.

더 그로스는 자금지원과 함께 브랜드 정체성 수립을 통해 브랜드 마케팅의 토대를 구축하고 퍼포먼스 마케팅과 디지털

유통 채널 시스템을 통해 매출을 견인해 SME·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더 그로스는 SME·스타트업과 함께 협업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웰릭스캐피탈의 ‘웨이브(Wave)’ 프로그램 △퍼포먼스 바이 TBWA의 ‘10X10’ 프로그램 △TBWA코리아의 ‘엑셀레이터(Xcelerator)’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웰릭스캐피탈에서 제공하는 웨이브 프로그램은 마케팅 활동 자금을 지원한다. 직접적인 투자와 융자 지원도 가능하며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춰 신기술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각종 세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라이프 분쟁조정’ 우리은행 임원發 코로나 악재

금융 인사이트

부행장 등 5명 무더기 감염 업무 보고체계 ‘잠정 휴업’ 감사의견서 회신 미뤄지며 피해 배상 일정 조율 차질



우리은행 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맞말이 무성하다. 임원들의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라이프펀드 감사의견서 회신을 미루고, 펀드피해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일정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임원들은 함께 한 모임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임원발(發) 집단 코로나19 감염이 펀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우리은행 임원 5명은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행장 1명과 부행장보 1명, 상무 3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같은 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했고, 함께 관련 모임에 참석해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임원발 코로나 확진으로 펀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라이프펀드 판매 관련 현장감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보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임원 코로나 확진 영향의 이유로 금감원에 감사의견서 회신 연기를 통보했다. 임원들이 ‘잠정휴업’ 상태라 보고 체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금감원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회신받아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은행들이 감사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하면 금감원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징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종합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제재심 일정도 자연스럽게 밀리게 됐다”며 “일정들을 따져봤을 때, 라이프펀드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는 12월이나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약속했던 라이프펀드 분쟁조정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됐다. 우리은행은 은행권에서 라이프펀드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KB증권과 함께 분쟁조정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예정했던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중순에 삼자대면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은행 본점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발 빠른 배상을 기대하고 있는 펀드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라이프펀드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하루빨리 제재심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임원들 골프회동에 분쟁조정만 기다리는 펀드 피해자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고 일갈했다. 서지연 기자 sj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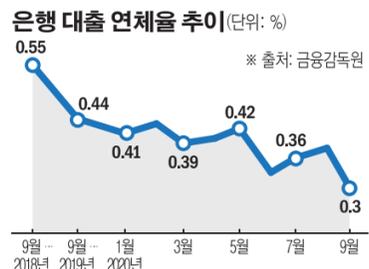
코로나의 역설... 9월 은행 대출 연체율 ‘최저’

전월비 0.07%p 떨어진 0.3% “정책 지원 착시... 내년이 문제”

은행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정책으로 인한 착시효과일뿐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은행 연체율은 0.3%로 1개월 전보다 0.0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종전 최저치(지난 6월 말 현재 0.33%)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다. 9월 말 연체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0.14%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체율이 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낸 건 정부



의 정책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패키지 효과가 반영됐다”며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내년 상반기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까지인 코로나19 관련 대출만기 연장을 지시했다. 이 조치가 종료되는 직후부터 연장분의 상당부분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은행권 자본건전성 강화 유도로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1개월 전보다 0.09%포인트, 1년 전보다 0.2%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각각 0.28%, 0.4%로 작년 9월보다 0.36%포인트, 0.16%포인트씩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연체율이 작년 9월보다 0.21%포인트 내린 0.53%였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0.09%포인트 내린 0.25%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작년 9월보다 0.07%포인트 각각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년 전보다 0.06%포인트 내린 0.16%였고, 신용대출 등 그 밖의 대출 연체율은 0.09%포인트 하락한 0.36%로 집계됐다.

9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 원으로 지난해 9월(1조4000억 원)과 재작년 9월(1조3000억 원)보다 적었다. 올해 7·8월(각 1조3000억 원·1조1000억 원)에 비해서도 줄었다. 김법근 기자 nova@

푸른현대생명, 보험료 전액 만기 전 환급

‘행복리턴 건강보험’ 출시

푸른현대생명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 전에 100% 돌려받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푸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푸른현대 행복리턴 건강보험은 납입했던 보험료는 만기 전에 중도급여금으로 100% 환급받고,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비는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만기전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2가지 형태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일시지급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에 생존시, 총 납입보험료를 일시에 환급받는다. 분할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에 생존시,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까지 매월 또는 매년 분할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보장내용에 따라 ‘암보장형’과 ‘3대 질병보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암보장형은 고액암, 일반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암, 소액암 진단비를 보장한다. 3대 질병보장형은 암보장형 보장내용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색증 진단비를 포함하여 보장한다. 박진산 기자 jinsan@



마침내 우리집! 시작은 우리은행

튼튼한 우리은행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2020.06.15 현재, 세금납부전)

**주택도시기금
행복파트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19~만34세로 상품에서
정해진 소득 및 세대요건 충족 시)

최고
연

3.3%



**주택청약
종합저축**
(2년이상가입시)

연 1.8%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지급보증합니다.)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99-0800, 1599-5000, 1588-5000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앱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06.22 준법감시인-1414 심의필 (유효기간 2021.12.31)



허태수 GS회장 ‘첫 인사’ 안정 속 변화

정기인사 예전보다 한 달 앞당겨
30명 규모로 급격한 조정 없어
전문성 갖춘 외부인재 3명 영입

GS그룹이 허태수 회장 취임 후 첫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GS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임원인사를 한 달가량 앞당겼다.

이번 인사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었지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가적 경험과 디지털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의 발탁에 초점을 맞췄다.

GS는 △대표이사 선임 및 부사장 승진 4명 △외부 영입 3명(부사장 2명, 전무 1명) △전무 승진 6명 △상무 신규선임 17명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임원 인사는 계열사별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미래 신사업의 청사진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예년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 실시했다”고 설



김성원 GS에너지 부사장 신상철 GS건설 부사장

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GS글로벌 자회사인 GS엔텍 운영총괄(COO) 도정해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도 선임 대표는 2015년 GS엔텍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선임돼 경영 효율화를 주도했으며 작년 GS글로벌 경영전략본부장(CFO)으로 재직 후 최근 GS엔텍 운영총괄(COO)로 자리를 옮겼다. ㈜GS 여은주 부사장은 GS 홍보 담당과 GS스포츠 대표를 겸임한다. GS칼텍스 재무실장 유재영 전무와 GS리테일 전략부부장 오진석 전무는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한다.

전무 승진은 GS칼텍스에선 최병민 상무와 허철홍 상무가, GS건설에선 이규복

상무, 김영욱 상무, 김영신 상무, 유현종 상무가 대상자다. 허철홍 신임 전무는 GS 네오텍 허정수 회장의 장남이다.

GS는 지난해 비교적 큰 폭의 승진과 인사 이동을 단행한 만큼 올해 인사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했다. 조직간 유기적인 조화 및 안정성을 유지하며 신사업 경험과 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외부 인재를 과감히 중용했다.

특히 G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가 불러온 ‘뉴노멀’ 트렌드에 따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성별과 나이 등을 가리지 않고 역량 있는 인재를 영입해 조기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GS에너지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 김성원 부사장, GS건설 신사업지원그룹장 신상철 부사장, GS홀소핑 경영전략본부장 박소일 전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가적 경험과 디지털 역량을 두루 갖춘 것으로 검증된 3명의 인재를 영입해 미래 신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허태수 회장이 강조한 ‘오픈이노베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허 회장은 그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고객 중심으로 모든 초점을 맞춰 줄 것”과 “디지털, 환경 및 클린에너지 등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비욘드(Beyond) 영역을 포함해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룹 관계자는 “GS의 조직 구조, 시스템 및 조직문화 차원에서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적극 발탁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애자일(Agile·신속하고 변화에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과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디지털 조직 문화의 기반 위에서 역동적인 혁신이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경연 “노조법 개정안 부작용 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한 제도 정비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할 경우 노동시장이 더욱 경직될 수 있다”며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勞)와 사(使)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론에는 김영문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이 참여했다.

김희성 교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파업에 대한 대항행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노조의 직장점거에 대해 근로도 할 수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 들어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노사관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ILO협약을 수용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장경영 재개 이재용 부회장 “다시 디자인 혁명을”

삼성 전자 통합 디자인 전략회의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첫 비전 점검

“다시 한번 디자인 혁명을 이루자.”

지난달 25일 이건희 회장 별세 후 경영 행보를 잠시 멈췄던 이재용 부회장이 디자인 경영으로 현장에 복귀했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울R&D 캠퍼스에서 디자인 전략회의를 열고 “디자인에 혼을 담아내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미래 디자인 비전 및 추진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 부회장은 또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자. 도전은 위기 속에서 더 빛난다”며 “위기를 딛고 미래를 활짝 열어가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업부별 디자인 전략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 주관으로 전자 통합 디자인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5G 및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기기 간 연결성이 확대되고 제품과 서비스의 융·복합화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디자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용(맨 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우면동 서울R&D 캠퍼스를 방문해 서빙·배달·안내 등이 가능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특히 이 부회장이 이번 회의 회장 별세 후 첫 경영 행보로 미래 디자인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재계는 이 회장의 ‘디자인 경영’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 리드카(Jeanne Liedtka) 버지니아대학 다르덴(Darden) 경영대 부학장, 래리 라이퍼(Larry Leifer) 스탠포드대학 디스쿨 창립자 등 글로벌 석학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혁신 사례도 공유했다.

또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 대표이사, 고동진 IM부문 대표이사, 한중희 VD사업부장,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등을 비롯한 세트 부문 경영진과 승현준 삼성리서치 연구소장, 이은태 디자인경영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정에서 운동·취침·식습관 등을 관리해주는 로봇 △서빙·배달·안내 등이 가능한 로봇 △개인 맞춤형

콘텐츠 사용 등이 가능한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등 차세대 디자인이 적용된 시제품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제품의 성능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996년 ‘디자인 혁명’을 선언하고 △디자인경영센터 설립 △글로벌 디자인 거점 확대 △디자인 학교(SADI) 설립을 통한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추진해왔다.

송영록 기자 syr@

두산중·중부발전, 해외진출 MOU

두산중공업은 한국중부발전과 해외 수력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신규 해외 수력발전사업 공동개발’, ‘수력발전 분야 기자재·설계 국산화 및 수출을 위한 판로개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위치한 45MW(메가와트)급 완무 수력발전소를, 2018년부터는 55.4MW급 땅가무스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1980년대부터 수력발전 사업을 시작해 3100MW 규모의 국내 수력발전소에 주계약자로 참여했으며 미국, 인도, 필리핀 등 해외 수력발전소에도 주요 기자재를 공급해왔다.

이주혜 기자 winjh@

‘LG 윙’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LG전자는 이달 12일부터 LG 윙(LG WING)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킥헬프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진단하기 메뉴를 누르고 휴대폰 자가 진단을 선택한 후, 사용 기록을 전송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자동 진단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사용자가 킥헬프를 통해 스마트폰 기능 점검 데이터를 전송하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배터리 이상 유무, 네트워크 이상 여부 등 9개 항목을 점검한다.

또 점검 후 진단 결과와 관리 방법을 제안해 사용자 스스로 기기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스마트폰 자가진단 서비스는 실제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기사가 사용하는 휴대폰 점검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고객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점검할 수 있어 편리하다. 노우리 기자 we1228@

SK이노, 내년 美 배터리 공장 완공 앞두고 현지 인력 채용

200명 시작으로 2600개 일자리
ITC 최종판결에 유리한 여론 조성

SK이노베이션이 내년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현지 인력 채용에 나섰다.

조바이든 미국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며 전기차 산업 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공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현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12일 스킨뉴스(Skinnews)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사업

자회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내년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위치한 제1공장의 완공 및 시험 생산을 앞두고 200여명 규모의 인력을 채용한다.

생산·품질·유지보수·안전관리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조직별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황준호 SK 배터리 아메리카 대표는 “제1 공장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첫 배터리 공장으로서 초기 안정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채용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이번 채용을 위해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스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근 지역의

신문사 등을 통해 채용 광고를 게재했다.

14일(현지시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상황을 고려한 ‘드라이브 스루 취업 박람회(Drive-thru Job Fair)’도 개최해 지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원자들의 관심과 호응도 등을 감안해 취업 박람회 추가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을 고용해 2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채용은 필요 인력을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

는 의미도 있는 만큼 LG화학과의 배터리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여론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 달 26일 LG화학과의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의 판결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규모 인력 채용과 투자에 나선 SK이노베이션의 영향력을 마냥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G화학 역시 현지 인력 채용에 나선 상황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서라운드 디스플레이와 슬라이드 캡을 적용한 스마트폰 예상 렌더링 이미지. 사진출처 레츠고디지털

앞뒤·좌우 모두 화면 삼성 새 폼팩터 시동

샤오미가 양산 포기한 '서라운드 디스플레이' 美 특허

스마트폰 업계에서 차기 폼팩터(하드웨어 형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상하좌우 4면을 디스플레이로 둘러싼 '서라운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샤오미가 개발했지만, 대량 양산에는 실패한 서라운드 디스플레이 제품 '미 믹스 알파'보다 발전된 형태로, 실제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월 업계와 네덜란드 IT전문 매체 레츠고디지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7월 서라운드 디스플레이와 슬라이딩 후면 카메라 등의 내용이 담긴 70페이지가량의 특허문서를 미국특허청(USPTO)과 세계 지적재산권사무소(WIPO)에 제출했다. 이 특허는 지난달 29일 승인을 받으며 공표됐다.

특허 문서에 담긴 스마트폰 이미지에선 기기 전면을 디스플레이가 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구부러졌지만, 후면 디스플레이는 평평하다. 위와 측면 디스플레이는 곡선으로 구부러진다.

특허에선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기기에 둘러싸 접는 방식의 방법을 거론했다. 모서리 작업의 경우 여러 개 디스플레이로 작업하는 것이 난도가 낮지만, 한 개의 디스플레이로 작업하면 해상도를 쉽게 조정하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기에서 돌출된 별도 버튼이나 카메라는 없다. 지문 인식 센서나 스피커 등도 모두 디스플레이 아래에 배치됐다. 물리 버튼은 제거했지만, 수직 스트립 형식으로 후면 카메라를 삽입한 '미 믹스 알파'보다 발전된 부분이다.

대신 슬라이드 폰의 특징을 이용한 '슬라이딩 캡' 방식을 적용했다. 사용자가 후면 부분을 아래로 밀어 카메라를 노출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슬라이드를 밀어 올린 상태에서 셀카를 찍거나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이용 중인 콘텐츠가 전·후면 디스플레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만일 영상이나 게임 등을 타인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양쪽에 띄워놓고 감상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디스플레이에는 원하는 그래픽을 설정해놓을 수 있다. 카메라를 사용해 환경을 스캔할 수 있는 기능도 언급됐다. 사용자가 있는 환경의 색상을 카메라가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비슷한 색으로 바꾸는 기능이다.

다만 제품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제품 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가격과 수출 등 상용화 단계까진 넘어야 할 벽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샤오미는 지난해 9월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서라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미 믹스 알파'를 선보이며 연내 출시 계획을 밝혔지만, 결국 1년 만에 무산됐다. 출시 예상 가격이 1만9999위안, 한화로 약 336만 원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다.

올해 8월 샤오미의 레이전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도 미 믹스 알파 출시 계획이 기약 없이 보류된 것과 관련,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크다"며 양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레츠고디지털도 "이러한 종류의 스마트폰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삼성이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만 높은 가격에 비해 충분한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현대차, 싱가포르 1위 충전업체와 '배터리' 협력

SP그룹과 전동화 생태계 구축
현지 전기차 값 낮춰 보급 확대
배터리 재사용·구독사업 검토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 SP그룹과 전동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SP그룹은 싱가포르 최대의 국영 전기·가스 배급 회사로, 현지에 올해 말까지 1000여 개의 전기충전소를 확보할 예정인 독보적인 전기차 충전사업자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발판삼아 배터리 재사용 등 신사업을 발굴하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SP그룹 본사에서 '싱가포르 전동화 생태계 구축 및 배터리 활용 신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홍범 현대차그룹 SF이노베이션 센터장 전무, 추키헝(Chuah Kee Heng) SP그룹 친환경 에너지 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양사의 협약 체결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싱가포르 전동화 정책 연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사업 개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자원 선순환 등 싱가포르에 전동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기공식을 열고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개방형 혁신 기지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전기차 구매비용 진입장벽을 낮추고, 고객이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해 현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SP그룹과 공동으로 싱가포르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인 싱가포르 정부의 전동화 정책을 공동 연구하는 등 성장 단계인 현지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고객의 실제 전기차 배터리 활용 데이터와 SP그룹의 충전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리스 형태로 제공되는 배터리 구독 및 관리 서비스 △차량용으로 더는 사용하기 어려운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터리 재사용' △차량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속을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 등 신사업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면 서도 배터리를 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차 이용 전반에 걸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홍범 현대차그룹 SF이노베이션센터장 전무는 "HMGICS를 통한 혁신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SP그룹처럼 혁신 역량을 갖춘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10주년 'K5' 중형세단 연간 판매 1위 눈앞

10월까지 쏘나타에 1.4만대 앞서

출시 10주년을 맞은 기아자동차 K5가 올해 처음으로 중형세단 판매량 1위에 오를 전망이다. 20~30대를 겨냥한 상품성과 마케팅이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12월 기아차에 따르면 K5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만2175대가 판매됐다. 지난해보다 136% 늘어난 판매량으로, 출시 당시 제시한 연간 판매 목표(7만 대)를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경쟁 차종인 현대자동차 쏘나타는 5만8040대가 팔리며, K5 판매량을 밀돌았다.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K5가

처음으로 쏘나타를 제치고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중형세단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K5는 2010년 K7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된 K시리즈다. 2006년 기아차에 합류한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의 손길을 거친 K5는 출시 첫해에만 6만 대 넘게 팔리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후 올해 10월까지 내수 시장에서 총 64만대가 넘게 판매됐다.

꾸준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간 쏘나타만큼 따라잡지 못했지만, 올해 초부터 반전이 시작됐다. K5는 올 1월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두 차례를 제외하고 쏘나타의 월 판매량을 앞질렀다. 유창욱 기자 woogi@



4주 지속 살충력!



비오킬 500mL(가정용)

우리집 해충 박멸엔 비오킬

● 4주 지속 효과! ● 침구류에도 OK! ● 무색무취! ● NO 프레온가스!

비오킬은 인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선진국형 저독성 살충제입니다
특수 코팅된 원료로 햇빛, 높은 온도, 습도에 안정하며, 분사 후 4주 동안 지속적인 살충효과를 나타냅니다.

비퀴벌레, 파리, 모기, 빈대, 벼룩, 쥐이, 진드기, 좀벌레, 개미의 구제

| 소비자상담실 080-001-0921 | 동성제약 홈페이지 www.dongsung-pharm.com | 비오킬은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5G 1000만 시대... 이통사 '중저가 요금제' 딜레마

5G 트래픽 이용자 상위 10%가 전체 비중 42% 차지
이통사, 정치권 압박에 4만~6만 원대 요금제 준비 중
데이터 소비 많은 5G 특성상 실효성 논란 불거질 듯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중 트래픽 다량이용자(헤비유저) 비율이 늘면서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압박을 받는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금제를 낮추면서 데이터 제공량을 줄이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하는 무선데이터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5G 헤비유저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G 통계는 지난해 2분기부터 포함돼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2분기 헤비유저 비율이 소폭 줄어드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3분기에 반등해 역대 최고 규모를 경신했다. 9월 기준 5G 서비스의 트래픽 이용량은 22만6786TB으로 2분기 6월 대비 33.5% 증가했다. 8월 22만5055TB에서도 증가

한 것으로 9월 트래픽은 5G를 제외하고 3G, 4G, 와이파이가 모두 8월보다 감소했다. 5G 트래픽을 쓰는 사람 중 데이터를 많이 쓰는 상위 1%는 2만3032TB를 사용했고, 이비중은 전체 5G 사용자의 10.2%를 차지했다. 상위 5%와 상위 10% 이용자는 각각 6만3385TB, 9만6011TB를 썼고 이는 전체 비중의 27.9%, 42.3%를 차지했다. 헤비유저 중심의 5G 서비스가 자리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5G 서비스는 애초에 데이터를 많이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고, 실제 AR VR 등 5G용 콘텐츠들의 데이터 소모량은 현저히 크다. 이 때문에 이통 3사 모두 5G 요금제에서 주력으로 미는 요금제는 '데이터 무제한'이다. 5G 가입자 증가도 헤비유저가 늘어나는

5G 트래픽 이용자 비중

	상위 1% 이용자		상위 5% 이용자		상위 10% 이용자		
	트래픽(TB)	비중(%)	트래픽(TB)	비중(%)	트래픽(TB)	비중(%)	
2020년 3월	152,729	14,751	9.7	40,486	26.7	62,209	40.7
6월	169,898	15,501	9.1	44,012	25.9	66,811	39.3
9월	226,786	23,032	10.2	63,385	27.9	96,011	42.3

* 출처: 과기정통부

요인 중 하나다. 9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924만8865명이며 올해 1000만 돌파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압박하면서 이통사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초 KT는 월 4만5000원과 월 6만9000원짜리 5G 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요금제 개편을 약속했다. 3분기 컨퍼런스콜(컨콜)에서도 SKT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신규 5G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나올 5G 중저가 요금제의 가격 수준과 데이터 제공량은 KT가 먼저 내놓은 요금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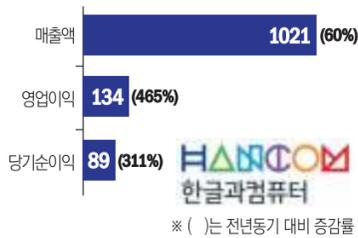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SKT의 신규 요금제 역시 10GB 이하의 소량 데이터에 4만 원대와 100GB 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6만 원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5G 중저가 요금제란 4만 원대 선이다. 지난해 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 3사 CEO 간 첫 간담회 직전 중저가 요금제의 기준을 4만 원대 이하로 보라는 기자의 질문에 최 장관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KT가 내놓은 4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5GB(소진 시 최대 400Kbps 속도)를 제공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5G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못 미치는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가격만 낮췄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9월 기준 5G 요금제 가입자당 트래픽 사용량은 25.7GB 수준이다. LTE 요금제 가입자당 평균인 9.9GB의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SKT와 LG유플러스가 중저가 5G 요금제를 내놓을 때 실효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생겼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데이터 제공량도 내려가면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개선된 요금제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저가 요금제를 이미 출시한 KT는 3분기 컨콜에서 "8만 원 이상 5G 요금제 가입 비중이 여전히 8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의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5G 망 투자의 책임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라는 압박은 너무나 큰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수권 쥐어짜듯 짜내면 결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통신업뿐 아니라 5G 콘텐츠 산업에까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한컴, 3분기 영업익 134억... 465% '굉충'

매출, 60% 증가한 1021억
2분기 연속 1000억 돌파
한컴MDS·한컴라이프케어
주요 연결자회사 고른 성장

한글과컴퓨터 3분기 실적 (단위: 억 원)



한글과컴퓨터가 3분기에도 활짝 웃었다. 한글과컴퓨터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3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21억 원으로 60% 증가해 2분기 연속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 3분기에는 한컴의 주요 연결자회사들의 고른 성장도 눈에 띈다. 한컴MDS는 매출 330억 원, 영업이익 9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됐다. 지난 9월 자체개발한 IoT 플랫폼 'NeoIDM'의 일본 수출 성과와 자율주행 개발SW를 통한 수익이 주요했으며, 일본 유선이 IoT 관리 영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

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매출액 449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을 기록해 300%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기존 주력사업분야인 소방용 공기호흡기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와 함께 KF94를 비롯한 개인용 방역마스크가 국내외 약 20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B2C에서도 성장을 실현했다. 한컴은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클라우드 분야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다. 아마존 AWS의 글로벌서비스인 '위크독스', 네이버의 '웹일브라우저', NHN의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두레이' 등에 웹 오피스 기술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언택트 확산 흐름에 발맞춰 국내외와 해외의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하여 성장을 도모한다. 전망도 밝다. 우선 한컴MDS는 자체 개발 블루투스 기반의 보안솔루션 '네오키매니저', 고도화된 객체인식 및 영상처리 기술 기반의 자체개발 발열감지SW를 통해서 수익성을 지속 상승시켜나갈 예정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도 구체화함으로써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컴 관계자는 "주요 연결 자회사들도 자체 기술력 확대와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발굴, 추진 중인 신사업 가시화를 통해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NC, K팝 플랫폼 '유니버스'... 아이즈원, 첫 주자로 엔씨소프트는 케이팝(K-POP)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의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사전 예약 오픈을 기념해 유니버스의 첫 번째 아티스트 '아이즈원'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매일 오전 10시 공식 사이트를 통해 유니버스에서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 11개 팀이 차례대로 공개된다.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U+아이들나라 4.0, 청담동 영어유치원 안 부럽네"

LG유플러스, 청담러닝과 제휴... 단계별 영어 홈스쿨링 강화

월 이용자 수 150만 명을 넘긴 LG유플러스의 유아동 전용 미디어 플랫폼 'U+아이들나라'가 청담러닝과 손잡고 또 한번 도약을 모색한다. 12일 LG유플러스는 'U+아이들나라 4.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U+아이들나라 4.0은 전문 영어교육기관인 청담러닝과의 제휴해 영어 홈스쿨링 프로그램 제공한다. 청담러닝 전문 커리큘럼 적용한 큐레이션 '오늘의 영어', 리모콘 '놀이펜' 출시, 맞춤형 추천 콘텐츠 등 기존 3.0에서 더 진화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정식 출시는 이달 16일이며, IPTV뿐 아니라 모바일과 태블릿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아이들나라 고객도 업데이트를 하면 4.0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놀이펜', 홈스쿨링 책자 등은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2017년 여름 처음 출시한 'U+아이들나

라'는 출시 3년이 넘는 현재 월 이용자 150만 명을 넘어섰다. TV와 모바일을 합친 규모다. 류창수 LG유플러스 홈쇼핑그룹장(상무)은 "아이들나라 출시 뒤 매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4.0 출시 뒤에도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U+아이들나라 4.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을 반영했다. 홈스쿨링이 대세가 되면서 생기는 '운동 부족', '영상 편식' 등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문현일 LG유플러스 IPTV상품담당은 "올해 교육 시장의 화두는 '언택트'라고 정의했다. 이어 "비대면 홈스쿨링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들은 이전과는 다른 고민을 한다"며 "홈스쿨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어려운 점에 더해 운동 부족과 영상 편식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U+아이들나라 4.0 출시와 함께 선보이는 아이 전용 리모콘 놀이펜은 모션 인식이 가능하다. 놀이펜은 가속도 및 방향을 측정하는 6축센서를 탑재해 아이들이 실 내에서 스스로 율동 게임 'U+tv 생생댄스'를 즐길 수 있게 했다. 'U+tv 생생댄스'는 유튜브 어렵하은이 동요에 맞춰 추는 율동 10편과 1억 뷰를 기록한 바다나무 영어댄스 10편 등 총 20편으로 구성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중기부, 스마트공장 '질' 높인다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체계를 '질적 고도화'로 집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이같이 바꾸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 이전까지는 일률적으로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시 1억 원, 고도화 추진 시 1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고도화 수준이 높은 스마트공장에는 최대 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5년까지 '5세대(5G)+인공지능(AI)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공장 1000개를 구축하고, 'K-스마트 등대공장'은 100개로 늘린다. 등대공장은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공장을 뜻한다. 중기부는 최최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 가이드라인(참조모델)을 마련할 계획

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등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스마트공장의 기획, 신청부터 구축 및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는 산업단지 등 기업 집적지와 유사 업종의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 상으로 연계해 다양한 공동활동 및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디지털클러스터'도 2025년까지 100개 구축한다. 부처 협업을 통해 식의 약(스마트팜), 농축산(스마트팜), 친환경-에너지(생태공장) 등 제조업 연관 분야에 스마트공장 기술을 접목해 '제조+1·3차 산업' 형태의 스마트공장 보급도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단계부터 사후관리, 고도화 등 스마트공장 사업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까지 스마트공장을 약 2만개 구축하고, 2022년까지 3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올해도 中광군제 흥행기록 갈아치운 'K브랜드'

LG생활건강 2600억 매출
럭셔리 화장품 인기 174% 신장
이랜드 800억·농심 16억 기록



패션기업 이랜드 역시 중국 광군제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800억원(4억 7500 위안)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흥행 기록을 다시 썼다. 특히 이랜드는 중국 내에서 'O2O 재고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과 물류 통합 시스템을 통해 당일 배송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디지털 전환 전략에 성공한데다 왕홍 등 새로운 이커머스 채널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적중해 이번 광군제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올 광군제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는 여성복 '이랜드'로 광군제 기간 동안 단일 브랜드로 매출 1억 위안을 넘기며 활약했다. 작년 대비 매출이 80% 성장과 티몰 내 복종 순위 16계단 상승을 동시에 이뤄내며, 한국 여성 브랜드 최초로 20위권 내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광군제 특수를 기대했던 K푸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농심은 광군제에서 역대 매출 최대치를 찍었다. 농심은 광군제 행사 동안 온라인에서 910만 위안(약 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광군제 매출인 700만 위안보다 30% 성장한 수치다. 인기 제품 품목으로는 △농심라면 8종 패키지 △신라면 봉지(5개입) △김치라면 봉지(5개입)이 올랐다. 김혜지 기자 heyji@

뷰티·패션·식품 등 국내 소비재 업체들이 올해도 중국 최대 쇼핑축제인 '광군제'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갈아치우며 K브랜드의 위력을 다시금 과시했다.

올해 알리바바의 광군제 매출은 4982억 위안(약 84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751억 달러로, 종전 기록인 지난해 384억 달러의 약 2배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판매 기간이 대폭 길어진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억눌린 소비가 회복하는 '보복소비'가 이뤄진 점이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LG생활건강은 올해 광군제에서 후, 슝, 오희, 빌리프, VDL, CNP 등 6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가 15억5000만 위안(약 26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대비 174% 신장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갱신했다고 12일 밝혔다.

'후' 브랜드는 광군제 매출이 지난해 대비 181% 신장하면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에서 에스티로더, 랑콤에 이어 3위에 올라 뷰티브랜드 '10억 위안(약 1680억 원) 브랜드 클럽'에 입성했다.

특히 후의 대표 인기 제품인 '천기단 화현(사진)' 세트는 지난해보다 200% 증가한 76만 세트가 팔려나가며 티몰 전체 카테고리 중 매출 기준으로 화웨이, 애플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올 광군제 매출이 지난해 대비 100% 성장(위안화 기준)했다.

대표 브랜드인 '설화수'의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대비 174% 올랐다. 또, 라네즈의 립슬리핑 마스크는 예약 판매 첫날 카테고리 1위에 올랐고, 슬리핑 마스크 총 판매량만 20만 개를 기록했다. '헤라' 매출량도 지난해 대비 100% 성장했고, 블랙 쿠션과 블랙 파운데이션이 각각 3만 개, 2만 개 팔려나갔다.

애경산업은 '티몰 국제 애경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115억원(6881만 위안)의 행사 거래액을 기록하며 지난해 행사 매출액 대비 24% 성장했다. 'AGE 20's(에이지 투웨니스) 에센스 커버 팩트'로 행사 기간에 45만4000개가 판매되며 올해도 티몰 내 BB크림 부문에서 판매 순위 1위를 차지,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닥터자르트도 354억 원(2억 862만 위안)의 매출을 올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닥터자르트는 사전 예약판매 단계부터 지난해보다 매출이 307% 이상 증가한 데 이어 본 행사 이후에는 광군제 매출 자체 신기록을 넘어섰다.

롯데쇼핑, 롯데百 중동점 등 6곳 양도... 7300억 실탄 확보

롯데리츠에 임차 "신사업 투자"

롯데쇼핑이 신사업 투자를 위해 롯데백화점 등 6곳을 유동화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롯데백화점 중동점을 비롯한 5개 점포와 물류센터 등 6곳을 계열사인 롯데리츠에 7342억 원에 양도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차하기 결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쇼핑이 양도하는 부동산은 롯데백화점 중동점 및 안산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롯데마트 계양점 및 춘천점이다.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1717억 원에, 안산점은 986억 원에 매각한다. 롯데백화점

아울렛 이천점은 2753억 원에 양도하고, 롯데마트 계양점과 롯데마트 춘천점은 각각 761억 원과 610억 원이다.

김포 물류센터 토지는 514억 원에 롯데리츠에 매각한다. 이를 합하면 총 7342억 원 수준이다.

롯데쇼핑은 자산 유동화에 나선 것은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이루는 한편, 조달된 자금을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자산매각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로 신성장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자산 양도 전과 동일하게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롯데쇼핑이 롯데리츠에 양도하고 임대하고 있는 매장은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롯데백화점 구리점,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아울렛&마트(서)정주점, 롯데아울렛&마트 울하점, 롯데마트 의왕점, 롯데마트 장유점 등이다.

롯데리츠는 롯데백화점, 아울렛, 마트 등을 자산으로 구성해 10개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지닌 회사다.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자산 편입이 이뤄지면 롯데리츠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현재 1조5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짜지 않은 건강간편식 '더비비고'

나트륨 함량 25% 이상 낮춰

CJ제일제당은 건강에 방점을 찍은 간편식 전문 브랜드 '더비비고'를 론칭하고 국물요리, 덮밥소스, 죽을 포함한 신제품 총 12종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CJ제일제당 측은 기존 '비비고'가 '제대로 만들어 맛있는 한식'을 콘셉트로 삼았다면, 이번 '더비비고'는 '건강을 중심으로 설계된 균형 잡힌 한식'을 표방한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건강간편식(Healthy HMR)'으로 HMR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건강간편식'이라는 신시장을 새롭게 만들고,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헬스앤웰니스 레디밀

(Health&Wellness Ready Meals)' 시장이 약 10조원 대 규모로 형성돼 있다. 맛, 양 등을 강조한 기존 가성비 중심의 HMR에서 진화해, 고단백, 저지방, 저탄수화물, 글루텐프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식생활에 따라 HMR 시장도 세분화됐다.

국내 HMR 시장은 맛과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군 위주로 형성돼있어, 그동안 탄수화물, 나트륨 과다섭취 등 영양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더비비고'는 CJ제일제당이 약 3년 동안 연구 개발 끝에 확보한 '저나트륨 기반 풍미 보존 기술'과 '원물 전처리 최적화 기술'을 적용했다. 기존 HMR 식품들을 둘러싼 탄수화물, 나트륨 과다섭취 등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유사 식품 대비 나트륨 함량을 25% 이상 낮추고, 짜지 않게 만든 점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 연구원과 영양전문가, 셰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 단백질, 식이섬유 등은 더하고, 과한 섭취가 우려되는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은 줄여 영양의 균형을 맞췄다. 수삼, 문어 등 건강식에 주로 사용하는 재료들도 풍성하게 넣어 원물감을 높였다. 주력 제품인 '도가니탕'은 콜라겐이 풍부한 도가니와 스킨(소힘줄)과 그 주위 근육 부위)를 듬뿍 넣었다. 김혜지 기자 heyji@

실적부진 아모레퍼시픽 '젊은피' 수혈

새 대표에 51세 김승환 발탁



퍼시픽에입사해 경영 전략팀장, 아모레퍼시픽그룹전략기획디비전(Division)장, 그룹인사조직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50대 젊은 대표를 발탁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12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김승환(사진) 현 그룹인사조직실장(전무)을 승진 시키는 등 총 6명에 대해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1969년생으로 올해 만 51살이다. 4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배동현(65) 대표보다 14살 젊다.

내부에서는 전임자보다 14살 젊은 대표를 두고 최근 실적 부진을 겪는 그룹의 위기 타개를 위한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분기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50~60%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3분기 매출은 1조 2086억원, 영업이익은 6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49% 줄었다.

김승환 신임 대표이사는 2006년 아모레

그는 2013년부터 아모레퍼시픽그룹 전략기획 Division을 담당하며, 해외법인 신규 설립과 중국 사업 확장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글로벌 매출 고성장을 이뤄낸 바 있다. 2015년에는 그룹전략 Unit장을 맡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국내외 법인과 계열사의 사업 전략도 총괄했다.

2017년부터는 아모레퍼시픽그룹 그룹인사조직 실장 겸 아모레퍼시픽 인사조직 Unit장을 역임하며, 인사(HR) 조직을 총괄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룹의 쇄신을 통한 조직 혁신 조치를 이어온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코로나 집콕' 3분기 매출 희비 백화점 울고... 대형마트 미소

신세계 24%·롯데百 15% 감소... 이마트 17% 올라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3분기 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외부 활동 자제로 패션·의류 등을 주로 취급하는 백화점의 타격은 계속됐지만, 먹거리를 주로 파는 대형마트는 선방했다. 집콕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재택근무가 늘어난 덕분이다.

◇백화점, 옷 안 팔려 '울상' =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2144억 원과 영업이익 25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2%, 73.8% 줄어든 수치다. 다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이 19.7%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하늘길이 막히며 면세점이 직격탄을 입은 가운데 백화점 매출은 3638억 원으로 5.5% 미끄러졌고, 영업이익은 281억 원으로 44.6% 떨어졌다.

롯데쇼핑은 3분기 매출 4조1059억 원, 영업이익 11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6.8%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26.8% 늘었다. 주력인 백화점 사업은 주춤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3분기 매출 6190억 원, 영업이익 78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5%, 25.2% 감소했다.

현대백화점은 동대문 면세점과 아울렛 신규 출점으로 매출을 방어했지만, 내실 다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대백화점의 3분기 순매출은 662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5%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447억 원으로 26.5% 떨어졌다. 다만 1분기(-80.2%)와 2분기(-84.0%)에 비해서

선방한 수치다.

백화점의 부진은 코로나 장기화로 외부 활동 인구가 급감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류 패션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말 기준 백화점 3사의 비식품 품목 매출 비중은 85%에 달한다.

◇대형마트, 집콕·재택에 '선방' = 반면 대형마트는 선방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 연결 순매출 5조90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올랐다. 1분기 5조2108억 원, 3분기 5조1880억 원에 이어 3분기 연속 5조 원대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1512억 원으로 30% 치솟으며 2분기 적자에서 흑자전환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2017년 4분기 이후 첫 플러스 신장세다.

사업부별로 할인점은 총매출 3조44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늘었고, 영업이익은 1140억 원으로 147억 원 뒷걸음질쳤다. 하지만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 사업의 매출은 8010억 원으로 무려 27.9% 치솟았다. 영업이익도 295억 원을 기록해 83.2% 급등했다.

롯데마트는 3분기 매출 1조5950억 원, 영업이익 320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8.5%로 주춤했던 매출은 -4.4%로 낙폭을 줄였다. 구조조정으로 점포 수에 메스를 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명절세트 판매와 신선식품 매출 증가로 기존점 매출은 신장했다. 경영 효율화에 나서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0.5% 솟구쳤다.

남주현 기자 jooh@

개인, 공모주 배정 물량 30%까지 늘어난다

금융투자협회 '공모주 제도 개선' 토론회

‘하이일드펀드’ 5%로 줄이고 ‘우리사주’ 미달 물량 5% 전환 ‘균등배분 방식’ 부분도입 추진, 소액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중복청약 막기 위한 ‘주관사 간 정보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몫이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개인 청약 물량에 대해 균등배분하는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공모주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형식은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지만, 사실상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SK바이오팜, 카카오페이

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되는 지적에 따라 개인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현재 규정은 공모 물량의 20%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는 각각 10%, 20%가 돌아오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 몫이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안을 보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정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이 5% 한도에서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전환된다.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몫이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개인투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방안 예시

	코스피		코스닥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우리사주조합	20%	5%	20%	11%
일반 투자자	20%	20%	20%	20%
하이일드펀드	10%	10%	10%	10%
코스닥벤처펀드	30%	30%	30%	30%
기관 투자자	20%	35%	50%	59%

※ 최근 3년간 우리사주조합 평균배정비율로 산정하여 계산 ※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20% 정도로 한정돼 있다 보니 일반인이 물량을 배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개인 청약 물량에 대해 균등배분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동원할 수 없는 소액 개인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쟁률 1000대1인 경우 공모가 2만 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 1억 원 납입 시 배정물량은 10주(20만 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개인 청약 물량 중 일부는 기존처럼 증거금에 비해 배분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외 주관사 간 청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일반청약자 관련 제도 개편 외에 기업공개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다.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절한 공모가격 산정에 기여도가 낮은 기관은 신주 배정을 제한하도록 하고, ‘코너스톤 투자자’를 사전에 유치해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 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초과배정옵션’ 제도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초과배정옵션은 공모주의 최대 15%까지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 후 주가 방어에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상장 후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초과배정 물량을 매수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80% 이상으로 낮춰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마트 “3년간 실적 상관없이 주당 최소 2000원 배당”

정용진 부회장, 증여세 재원 마련 ‘숨통’

3년간 309억 배당금 확보

이마트가 지난해와 동일한 2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면서, 정용진(사진) 신세계 부회장의 증여세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마트는 연간 영업이익(별도재무제표 기준)의 15%를 원칙으로, 최소 1주당 2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지속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으며,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동기간 이후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3년 간 실적과 상관없이 1주당 배당금 2000원은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3년 간 해마다 103억 원씩 배당받게 되면 정 부회장이 수령을 확정할 배당금은 총 309억 원에 달



한다. 정용진 부회장은 9월 28일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 회장으로 부터 이마트 주식 229만 2512주

(8.22%)를 증여받으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총 517만 2911주로 지분을 18.56%이다.

이번 증여는 사실상 이마트를 이끌던 정 부회장이 명목상으로도 완전한 경영 승계가 이뤄진 셈이다.

2018년 고공행진하던 이마트의 주가는 최고 32만 3500원까지 치솟았는데, 온라인이 주류로 변화한 유통시장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실적 부진과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인 오프라인 점포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절반으로 하락했다.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지

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신의 한수’로 작용했다.

정 부회장이 증여받은 이마트 지분 가치는 9월 28일 종가기준(14만 1500원) 약 3244억 원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상 증여받을 주식 가치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율은 50% 수준이다. 정 부회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최소 1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그룹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종합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백화점과 면세점 위주의 신세계로 분리 체제를 확립했다”며 “본격 2세 경영이 시작한 이유는 최근 수년간 가장 어려운 영업 환경에서 단행, 중장기 관점에서 주가가 더 하락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한전, 올 누적 영업이익 3.2조 ‘흑자전환’

매출 감소에도 저유가 영향 3년 내 최고 실적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개편 추진

한국전력이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의 3조를 넘어하면서 최근 3년 새 최고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15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 8419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3조 87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 2316억 원보다 3546억 원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 8419억 원이 늘었다.

한전은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에 대해 유가 등 연료 가격 지속 하락으로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매비가 3조 9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긴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기 판매수익이 4000억 원 감소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비용이 7000억 원 늘어 영업이익 증가 폭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연료비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하락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3000억 원 줄었으나 미세먼지 대책 관련 상한제약 영향 등으로

발전 단가가 싼 석탄발전량이 감소한 점은 실적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했다.

전력구매비는 민간발전사로부터의 구매량이 1.1% 증가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6000억 원 감소했다. 한전은 4분기 경영 여건 및 재무 개선 노력에 대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사를 시사했다.

한전은 “회사 경영여건이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추진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김중갑 한전 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인을 별도 분리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연료비의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께서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 마련을 직접 말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체계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삼성SRA운용, 홈플러스 4개점 매각... 2000억 차이

삼성SRA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홈플러스 4개점 매각을 2000억 원의 차이와 함께 모두 마무리했다.

12일 투자은행(IB)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운용)은 지난달 29일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수원 영통점 △인천 작전점 △경북 칠곡점 등 4개 점포 부동산 인수해 등기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앞서 매각 주체인 삼성SRA자산운용은 올해 7월 홈플러스 4개 점포 매각 본입찰을 진행해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대체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최종 매각가는 △부천 상동점 4320억 원 △수원 영통점 1440억 원 △인천 작전점 1198억 원 △경북 칠곡점 1361억 원으로 총 8320억 원에 달한다. 하나대체운용은 우정사업본부부를 주요 출자자로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매각 4곳 모두 역세권 ‘알짜 점포’

업황 위축 우려에도 매각 성공

한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인수 자금 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RA운용은 2013년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 유통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4개 점포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 가격은 6300억 원이었다. 매입가를 감안하면 2000억 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얻고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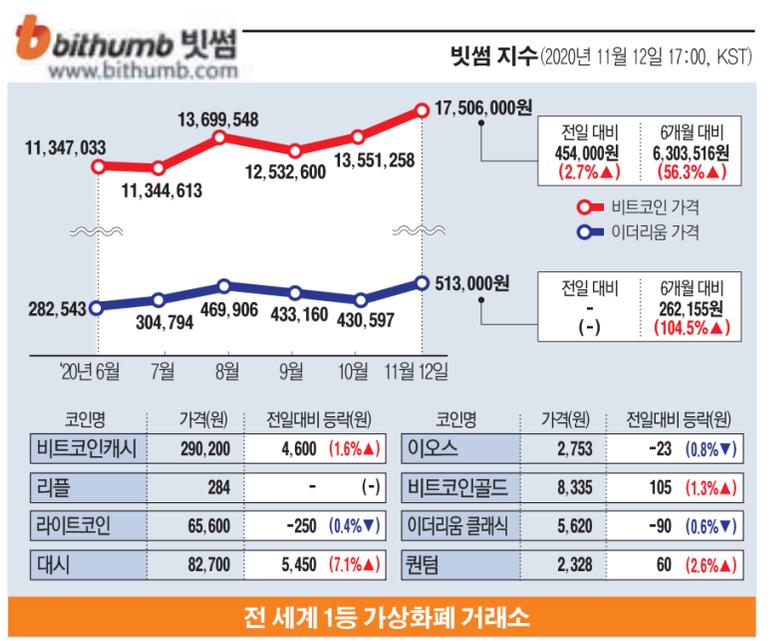
당초 시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홈플러스라는 입차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량 자산으로 손꼽혔지만 밀 클로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

통 유통채널인 오프라인 매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업황 분위기 때문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우려에도 삼성SRA운용이 2000억에 가까운 차익을 남겨 매각에 성공했다는 것은 결국, 우량입차인에 대한 매리트가 높다는 의미다”면서 “이들 4개 점포는 모두 역세권에 있어 홈플러스 전체 점포 중에서도 매출 기준으로 상위권 안에 든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동산을 마스터리스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임대차 계약이 8년 정도 남아있는 데다, 이들 모두 홈플러스의 핵심 점포여서 임대차 계약 연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도 셀링포인트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매각 건의 경우 입차인의 풀옵션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량 점포라는 점에서 주요 기관투자자 유치에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내년 집값·전세난’ 임대사업자에 달렸다

임대주택 등록 연내 47만 가구 말소...4년간 87만 가구 추산 정부 ‘매물 증가로 집값 안정’ 기대하지만 아파트 물량 제한적 ‘임대인 버티기’ 전셋값 올려 세입자에 세금부담 전가 가능성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집주인들 움직임을 두고 시장 관측이 엇갈린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집값이 하향 안정될 수도 전세난이 더 악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46만 7885가구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이후 △2021년 11만5086가구 △2022년 14만1746가구 △2023년 10만 2547가구 등 4년 동안 모두 82만 7264가구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인(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인은 의무 임대 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성을 갖추게 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등록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제는 폐지하고 아파트의 경우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제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정부는 내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이 매매시장에 나오길 기대한다.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연말까지 46만8000호가 자동 말소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물량이 매매시장에 풀리면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하면 의무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기대에서다.

세제 강화도 옛 등록 임대사업자의 선택을 독촉하는 요인이다. 내년 6월부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이 1.2~6.0%로 올라간다. 올해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도 시세 반영률을 90%로 올리기로 한 만큼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당분간 임대주택 등록 말소가 시장에 주는 요인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과급력을 주려면 아파트 물량이 많이 쏟아져야 하는데 내년까지 말소되는 물량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일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가 말소된다고 해도 물량이 많지 않으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임대인들이 ‘버티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연구원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세금 부담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2주택자는 주택



처분 비용 등을 계산하면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 아래 전세를 놓으며 버티는 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도 쉬워졌다.

등록이 말소된 임대인들이 버티기에 나서면 오히려 전세 수요자들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동안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료 증액 폭이 제한됐지만 등록이 말소되면서 이 같은 통제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예전 같으면 제한된 폭으로 임대료가 올랐겠지만 이제는 오른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받

을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전세 공급을 늘리더라도 가격 측면에선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모르고 성급하게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있다. 두 연구원은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제도를 바꿨어야 하는데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이용만 하고 제도를 폐지했다”며 “매매·임대 거래가 경색되면 시장이 교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거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신혼 특공 소득요건 140%이하로 완화

물량 30% 추첨제로 선정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1~2인 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정필 기자 roman@

‘무한경쟁’으로 내몰린 중개업소 ‘수수료 정액제’ 놓고 갑론을박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를 내건 공인중개소가 등장했다. 이 중개소는 동질의 중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이는 전략이지만, 주변 경쟁 업소들은 “이기적인 행보”라며 반발이 거세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다. 9억 원 이상 매매는 0.9% 이내, 6억 원 이상 임대차는 0.8% 이내로 당사자 간 협의하게 돼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총 9510 가구) 단지 안 상가에는 부동산 중개소만 80여 곳이 밀집해 있다. 이 아파트는 매머드급 대단지이지만 거래시장에 나온 매물은 많지 않아 중개소들 간 경쟁이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정찰제를 앞세운 중개업소가 최근 문을 열었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M부동산은 매도나 매수 거래 시 사례별로 0.1~0.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전월세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110만 원이다.

M부동산이 파격적인 가격을 내걸자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의 발길이 부쩍 잦아졌다. 상대적으로 고객이 줄어들게 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M부동산이 수수료 정액제로 현혹하고 있지만 독식을 한 이후에는 고객들이 중개업소에 끌려 다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부동산을 공동 중개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내 부동산 물건은 지역별 공동 중개를 통해 매물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맞춘 현실적인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이정필 기자 roman@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 PART2. 앞뽕달뽕 환경용어카뎀으로 보는 환경 이슈
- PART3. 친환경 모담노드 제대로 해라 제대로 지구를 살린다
-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인사이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속 미학
- PART5. 건강한 한 끼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잊은 경계가 보인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다저널 뉴딜 일자리 향수로 마려 양천구를 공군다
모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해법

“저희 70억 인구 중 저만의 유일한 취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취미인 남자 조동생 이사장의 브라보타임

나조차도 감동 못할 기사, 그 누가 감동해주려?
이진우 작사가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거기 도솔천

고수 열전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단박이나 편편을 운영하는 이가 많지만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를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최양산도담양컨설팅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가이이 현선을 짓겠다고 기세를 돋우던 남편이 결국 입을 내고야 말았다. 그후는 실의와 병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뭤? 편편 사업이 빅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김혜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가격’ 강원도 정선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다는 고한8리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열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잠 알 화단을 단정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명사·명작 돌아보기
알고 없는 거리의 화가, 박크시
“15의 원파리 그림이 질려나간 사연”

삼삼오오 50+ 커뮤니티
아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뼘

자투리 천도 송송하게 이으면 세상엔 하나뿐인 특별한 원단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뼘 한 뼘 바느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바래진 물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뼘’ 커뮤니티다.

경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검언유착사건 수사팀장〉

尹 또 때린 秋 “정진웅 기소 적절성 따져보라”

수사방해 제재 법률 제정 시도... 한동훈 “반헌법적”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첫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한 원포인트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한 검사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5일 대검찰청 검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검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대검 검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3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7월 29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이후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위 의혹에 대한 상반된 조치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수사 단계였던 한 검사장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며 직무배제한 바 있다.

정 차장검사 직무 배제에 이의를 제기한 한동수 검찰부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공

모로 임명하는 대검 검찰부장을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입맛대로 휘두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단정했다. 이런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조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기울로 물든 하늘공원 서울 낮 기온이 1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메타세쿼이아 길에 펼쳐진 풍경이 늦가을의 정취를 전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1심서 집행유예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환(68)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해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1-2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가 촬영한 여성 4명 중 3명은 촬영과 유포에 동의했으나 나머지 1명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씨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약 3k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옵티머스, 하나은행 직인 위조”

NH투자증권 직원 재판서 증언

5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수탁사의 직인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외 3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NH투자증권 직

원 A 씨는 “라임 펀드 사태 이후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면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해덕파워웨이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이후 4월과 6월 두 차례 걸쳐 옵티머스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옵티머스와 실랑이를 벌여 (투자한) 건설사의 사명을 가린 양수도 계약서, 양도통지도달서 카피본을 받아왔다”며 “양도인은 가려져 있었고, 중간에 옵티머스 날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檢 ‘불법 요양원 운영’ 윤석열 장모 소환조사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2년 10월 2억 원가량을 투자

해 구모 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년간 22억 원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 공동 투자자인 구 씨 등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필상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일과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일 말고 실권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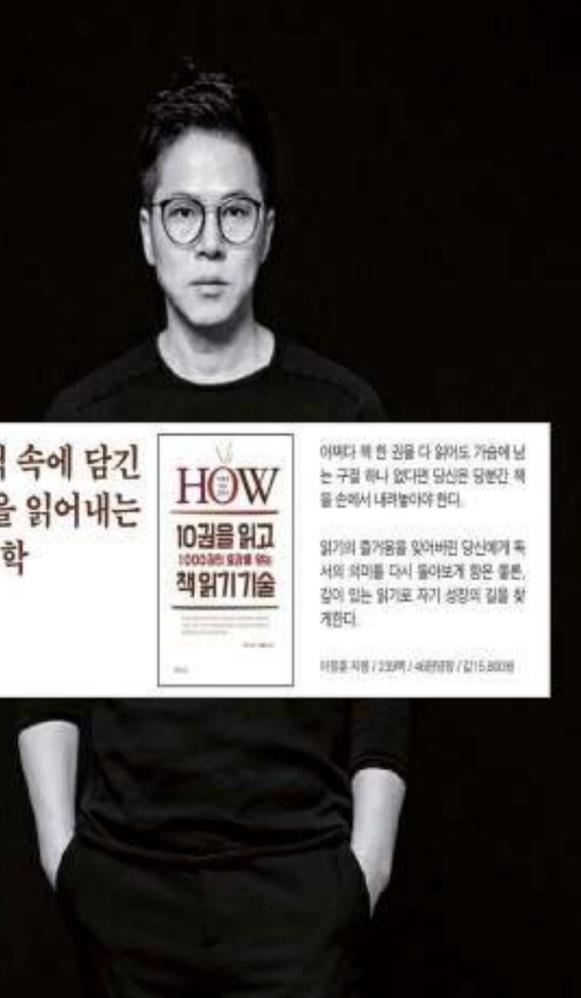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일 이자, 후속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사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간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물 주는 변호도 선택도 없어서 잘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적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4면 | 15,000원 | 978-89-955-114-00-0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가치를 얻는 책읽기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영호 저 | 228쪽 | 4800원 | 978-89-955-114-00-0

“100세 시대 살아가려면 공부 게을리할 수 있나요”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IPS) 이사장의 경력은 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결과물처럼 보인다. 1978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명된 이후 은퇴할 때까지 36년간 자리를 지키다 정년퇴직을 하고 베이징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2016년부터는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혁신을 이끌었다. 올해 4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위촉된 그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갈 날을 위해 최근 중국어를 배우려고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쉽 없이 제2의 인생을 추구하는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50년 만에 다시 대학생,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

사실 조동성 이사장은 2014년 서울대학교에서 은퇴한 후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중국 베이징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15년 계약으로 2029년, 80세까지 임기였지만 인천대학교로 가면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총장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못 돌아가고 간접 활동만 하는 중이라고 했다. 언젠가는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최근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해 2020학번 대학생이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음에 돌아오면 중국어로 강의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2029년까지는 이제 9년 남았으니 중국어로 강의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자는 게 목적이예요.”

그는 중국을 이해하면 한국이 보인다고 했다. 중국과 한국을 대비하면 재미있는 감각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에서 연줄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관시라고 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이게 없으면 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려면 연줄은 10%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이뤄지려면 관시가 9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줄과 관시를 비교하면 중국이 보인다

연줄과 관시(關係, 인맥) 사이에는 더 큰 차이가 있다. 연줄은 과거가 필요하다. 고향이 같은 학교가 같아서 만들어지는 게 연줄이다. 그런데 관시는 과거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연줄이 혈연·지연·학연으로 맺어진 과거지향적 관계라면 관시는 미래지향적이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의 성공을 꿈꾸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연줄 만들듯 관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게 조 이사장의 분석이다.

“관시는 수단입니다. 앞으로 일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예요. ‘삼국지’에서도 관시가 맺어지지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활용한다는 개념이 없고, 설혹 그러면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책 한 권에서 한 단어만 배워도 된다

1949년생이지만 미래를 위해 다시금 처음부터 공부에 뛰어든 정도로 열정과 학구열이 높아서인지 조 이사장은 동안으로 보였다. 그는 나이를 잊고 살아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청춘을 유지하고 싶어요. 나이를 안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상을 추구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청춘은 나의 미래이자 삶을 긍정적으로 관조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만의 영웅론을 갖고 있다. 영웅은 마음은 있고 자질이 없으면 돈키호테가 되고, 마음은 없고 자질이 있으면 햄릿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진정한 영웅은 두 개를 다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영웅의 마음이란 젊은 마음, 즉 청춘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포레가 만나서 하는 얘기의 95%는 옛날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모임에서 ‘절대로 어제 골프 친 얘기 하지 말자, 미래에 뭘 할 건지

를 얘기하자’는 원칙을 세웠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몇 달 해보니 한계가 와서, 아예 젊은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기도 했죠.”

그리고 보니 그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독서모임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의 경영자 독서모임(MBS)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임에서는 1년에 책 40권을 읽는데, 올해로 25년을 했으니 1000권을 읽은 셈이다. 그는 독서를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책을 내 걸로 만들겠다는 아집,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 독서법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독서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줄 지면서 읽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맡을 보고 이 책이 왜 써졌는지 이해한 후에 관심 있는 것부터 읽으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책 한 권에서 한 단어만 내 것으로 하면 성공적으로 읽은 셈이죠.”

그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대학원에서 AI, 크립토 MBA 석사과정도 밟고 있다. 인공지능의 이론과 실제, 경영의사결정 활용 등을 배우고, 블록체인과 디지털금융 메커니즘 및 비즈니스 접목 등도 공부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 은퇴 후 中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로 중국어로 강의하려 중어중문학과 편입

인생 첫날은 오늘... 과거 회상보단 미래 얘기해야

100세 시대엔 ‘박사’가 학력 표준

60대들, 30년 후 후회 않으려면 공부 시작하세요

잘하는 거 해야 하나, 좋아하는 거 해야 하나

조 이사장은 자신이 어떻게 기억될지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2013년 9월, 서울대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할까 생각했다.

“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해왔는데 교수도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나 싶었죠. 그래서 그걸 수행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는 전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자신을 불러주면 두 시간 무료 강의를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러자 15개 학교에서 요청이 왔고, 매주 한 번씩 15주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15개 학교에서 똑같이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잘하는 걸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할까요?’”

그는 고민 끝에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었다. 꿈이 확실하고 평생 지키는 독립군 같은 사람은 A형, 꿈은 있는데 바뀐 사람은 B형, 꿈이 있으나 자신이 없는 사람은 C형, 아예 꿈이 없는 사람은 D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답을 찾았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은 결과 변수였던 거예요. 원인 변수를 생각해서 원인이 이럴 때는 이런 결과를, 저럴 때는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던 거죠. 원인을 종속변수로 보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ABCD 카테고리 어디에 속



하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A형은 좋아하는 걸 해야 하죠.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총을 잘 쏘든 못 쏘든 독립군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꿈이 없는 D형은? 잘하는 것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B, C형은? 꿈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날은 오늘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자, 누군가가 조 이사장에게 ‘발칙한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느냐?’라고 물은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하면서도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하기 싫더라고요. 이럴 때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자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타입인가?’라고 물었죠. 그 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은 D형이었다가 B형으로 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감개무량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를 난생처음 본 학생이 정확하게 말한 거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최근까지 꿈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소위 ‘엄친아’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산 사람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꿈이 생겼어요. 제가 박사 학위를 도와준 사람이 4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박사 학위 받도록 해주는 걸 취미로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웃음) 그걸 보며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공부하는 기간도 길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부하는 시간을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평균수명이 50대였으니 중학교만 나와도 동네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때는 평균수명이 60대였으니까 고등학교를 나와야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70대였으니 대학을 나와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80대니까 석사까지는 봐야 하죠. 그리고 100세 시대에는 박사가 표준이 될 겁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즉, 박사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60대 시니어는 3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오래 사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평생교육의 전도사인 조 이사장은 ‘우리 인생의 첫날은 오늘이다’라는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거를 회고할 때는 아닌 셈. 우리의 절정기는 오늘부터이니 과거의 전성기를 회고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그 말처럼, 그의 프라임타임은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Hope. Together.

고맙습니다. 희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에 참여한 하보리 떡방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으로 같이가게'는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계기로 난생처음 시작해본 온라인 판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두근거림, 그리고 감사함과 더불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는 매출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셨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온라인 판매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소상공인과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 참여자 이정인 드림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용산떡방앗간, 케이푸드바이오, 오!은하수공방, 부각마을, 제이에로스, 119레오, 동동, 도산도방, 지평도예, 허브앤조이, 기운찬, 덕포식육점, 감자이모, 한터식품, 한방곰뱅이한글, 하워짓커피랩, 하보리떡방, 제이엠그린, 아리아리떡사랑, 세미락, 모양맛김, 간식여왕, 강화까까, 고후나비, 굴다리식품, 한우돌곰창, 한가람, 시장기름집, 유화컴퍼니, 메밀꽃이일다, 모이앤피, 버드윙리엄, 어반파머, 와이에이치디랩, 청년바른식, HIT, 진한지flower, 초아틱, 프롬유, 라마당, 청산제과, 자연데코, 오르리어, 디모먼트, 대광수산맛김, 금메달, 해마루팜, 토미153, 달콤공장, 투테일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 입점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 1강_ 온라인 진출 사전 준비편
- 2강_ 상품선정 및 촬영 편
- 3강_ 운영 및 관리 편

* 신한금융그룹 유튜브 또는 좌측의 QR코드를 통해 가이드 영상을 만나보세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한국 노동운동사 첫 장 쓴 의로운 죽음

오늘 '열사 전태일' 50주기...정부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당시 참혹한 노동현실 세상에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 산화
1970년대 한국 사회·지식인 집단에 경종 울린 일대 사건
반세기 지난 오늘에도 '노동존중사회' 되새기는 이정표로



“나는 만인을 위해 죽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이 같은 말을 남긴 뒤 산화한 지 50주년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 참혹한 노동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자신의 죽음으로 내보인 노동 현실의 절박함은 '전태일 정신'으로 기억된다. 그는 5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전태일 열사란 이름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각인하는 이정표로 남았다.

당시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스물두 살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햇빛을 보게 해 달라”, “어린 동심을 보호하라” 등을 외치며 스물두 살의 젊은 나이로 분신 항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화형식'을하기로 결의했다. 그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경찰의 방해는 거셌다. 그 순간 전태일은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는 불타는 몸으로 거리로 뛰쳐나와 마지막까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다가 쓰러졌다.

전태일을 뒤덮은 불길은 3분가량 타다가 꺼졌다. 당시 그 자리에서 있던 누군가가 근로기준법 법전을 전태일을 감싼 불길 속에 집어 던졌다. '근로기준법 화형식'은 그렇게 이뤄졌다. 이어 전태일의 한 친구가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며 잡마를 벗어서 불길을 덮었다. 전태일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0시 사망했다.

노동 현장의 '분신 투쟁'으로 호소할 정도로 열악했다.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10대 여공들은 똑바로 설 수조차 없는 다락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시도로 갖 취직했을 때 동료 시다, 미상보조들과 함께 찍은 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전태일이다. 오른쪽 사진은 1968년경 중부시장에서 일할 때의 전태일.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시도로 갖 취직했을 때 동료 시다, 미상보조들과 함께 찍은 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전태일이다. 오른쪽 사진은 1968년경 중부시장에서 일할 때의 전태일.

방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 '하루 8시간 노동', '정기 건강검진' 등을 규정한 노동법은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유명 무실했다.

전태일의 분신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대 법대생 100여 명이 그의 유해를 인수해 학생장을 거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생 400여 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다. 11월 20일 서울 시내 학생운동가들이 모여 전태일 추도식을 거행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는 공동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정신의 구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후 신민당은 노동 운동에 호응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신민당 당사는 노동자 시위대가 경찰의 탄압으로부터 몸을 숨기는 피신처로 쓰였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으로 분신 투쟁은 연이어 이어졌다. 1970년 11월 조선포털 노동자 이상찬의 분신 기도, 1971년 9월 한국회관 노동자 김차호의 분신 기도 등이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기폭제도 됐다. 전태일이 사망한 다음 해인 1971년 노동자 단결투쟁은 16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1970년 165건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규모

였다.

한편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전태일 열사는 노동계 인사로는 최초로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욱(전 국회의원)·태삼·태리 씨 등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을 가졌다. 청와대는 “이번 추서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을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로를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포항공대 최원용·부산대 오정은·영남대 정진영 교수 두산연강재단 '환경학술상' 수상

두산연강재단은 11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0 두산연강환경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두산연강재단은 수상자인 포항공과대 환경공학부 최원용(왼쪽 사진부터) 교수에게 상금 2000만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 공학과 오정은 교수와 영남대 환경공학과 정진영 교수에게는 각 1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최 교수는 '산화티타늄 나노튜브 광촉매 필터를 이용한 실내공기정화기 개발'이라는 논문으로 필터의 수명과 성능을 획기적으로 발달시킨 실내공기정화기를 개발하



는데 성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교수는 먹는 물에서의 오염과 상수원에서의 오염에 대한 차이를 밝혀 수돗물과 하천수의 유해물질 관리 정책 마련에 이바지했다.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는 단일 아나모кс 생물반응조에서 최고의 질소제거속도를 나타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GCR 평생업적상' 받아

법무법인 화우는 윤호일 대표변호사가 경쟁법(공정거래법) 분야대가에게 수여하는 'GCR 평생업적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1965년 사법시험(제4회) 합격 후 197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글로벌 로펌인 베이커앤 맥킨지에서 16년간 변호사로 국제거래, 국제소송, 공정거래 업무 등을 담당했다. 1987년 귀국해 법무법인 우방을 설립하고 2003년 법무법인 화백과 통합하면서 화우가 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본지 사진팀 신태현 기자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입선



이성희 농협회장, 전남 해남서 고령 농업인 집 고치기 봉사활동

이성희(사진 왼쪽 두 번째) 농협중앙회장이 전남 해남군을 찾아 고령 농업인 농가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봉사활동에는 농협 '농가희망봉사단'과 전남농협 봉사단원, 그리고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함께했다. 이 회장은 “겨울을 앞두고 고령 농업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게 돼

'제7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에서 본지 사진팀 신태현 기자의 '1250도의 열정, 구리 연금술 현장<사진>'이 입선했다.

12일 대한상의는 대상작 2점을 포함해 최우수작 6점, 우수작 12점 등 수상작 82점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상은 김승권 씨의 '가장의 가장 아름다운 옷'과 정병혁 씨의 '구석구석 꼼꼼히'가 차지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8일에 온라인으로 열리며 수상작은 대한상의 사진공모전 사이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쁘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함께하는 농협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인사

- ◆환경부 ◇국장급 전보 △자원순환정책관 홍동근
-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하우정
- ◆한국남부발전 △조달협력처장 김종대 △신인전발전본부장 심재원 △부산발전본부장 이기우 △안동발전본부장 맹원호
- ◆한국조폐공사 ◇상임이사 임용 △부사장 겸 기획이사 류진열 △사업이사 강병욱 △총무이사 김영석 ◇소속기관장 임용 △제지본부장 채종천
- ◆GS그룹 · GS에너지 ◇부사장 신규 영입 △김성원 에너지지원사업본부장 ◇상무 신규선임 △유정우 재무본부장 · GS칼텍스 ◇부사장 승진 △유재영 재무실장 ◇전무 승진 △최병민 GS에코메탈 대표 겸 이노폴리틱 대표 △허철홍 마케팅 부문장 ◇상무 신규선임 △서영관 유통유 SCM부문장 △진기섭 정비부문장 △심대용 경질제품부문장 △허주홍 생산DX부문

- 장 · GS리테일 ◇부사장 승진 △오진석 전략부문장 ◇상무 신규선임 △허치홍 편의점5부문장 △차은철 M4운영부문장 · GS홀쇼핑 ◇전무 신규영입 △박술일 경영전략본부장 ◇상무 신규선임 △박우현 마케팅사업부장 △박민수 경영지원부문장 · GS글로벌 ◇상무 신규선임 △김동석 자원사업부장 · GS엔텍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도정해(현 운영총괄(COO) 전무) · GS건설 ◇부사장 신규영입 △신상철 신사업지원그룹장 ◇전무 승진 △이규복 건축수행본부장 △김영욱 베트남신사업그룹장 △김영신 플랜트E&I설계담당 겸 로그하우스담당 △유현중 주택영업개발사업그룹장 ◇상무 신규선임 △최승현 신사업1팀장 △양동완 인프라국내개발1담당 △이상규 홍보담당 △이규근 건축영업담당 △김진걸 MFC Project/EM △이태승 건축수행기획-CS담당 △구분삼 환경사업담당 · GS스포츠 ◇대표이사 △여은주 부사장(겸 ㈜GS 홍보담당)
- ◆한화그룹 · (주)한화 ◇상무 승진 △방

- 산부문 박종국 복장군 △지원부문 채정희 ◇상무보 승진 △글로벌부문 윤석 장석현 △방산부문 고정호 신가정 이장준 홍기택 홍덕호 △기계부문 안우성 장두용 △전략부문 최정훈 △재경본부 김경일 · 한화시스템 ◇상무 승진 △김형주 류시양 박병철 ◇상무보 승진 △박혁 양태호 진명국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 승진 △류재규 ◇상무 승진 △남형욱 ◇상무보 승진 △김성조 이준원 · 한화테크윈 ◇상무 승진 △김기철 ◇상무보 승진 △노승인 · 한화디펜스 ◇상무 승진 △이부환 ◇상무보 승진 △손승현 정형동 조상환 · 한화정밀기계 ◇상무보 승진 △석명근 김성국 · 한화파워시스템 ◇전무 승진 △손영창
- ◆아모레퍼시픽그룹 · 아모레퍼시픽그룹 ◇부사장 승진 △대표이사 김승환 · 아모레퍼시픽 ◇전무 승진 △라네즈 브랜드 Unit 정혜진 △R&D Unit 박영호 ◇상무 승진 △설화수 브랜드 Unit 임종식 △중국 RHQ 부GM실 황영민 ◇상무II 승진 △중국 RHQ E-Commerce Division 캄빈 왕

부음

- ▲강숙자 씨 별세, 정경업(대신증권 프 라임고객서비스부장)·경태(동해ENC 팀장) 씨 모친상, 김성기(대창단지 재무팀장)·최기호(자영업) 씨 장모상 = 12일, 부산 광혜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51-506-1022
- ▲곽갑연 씨 별세, 정대화(상지대학교 총장) 씨 모친상 = 11일,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33-744-3970
- ▲지명순 씨 별세, 홍해리(시인) 씨 부인상, 홍성민(체널A 편성본부장)·한석(자영업)·유빈 씨 모친상 = 12일, 서울 노

- 원을지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2-970-8444
- ▲한상태 씨 별세, 한연희·명덕(코리아 타임스 광고국장)·용덕(대전시청 사무관)·미희 씨 부친상 = 12일, 동국대 일산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031-961-9400
- ▲김기순 씨 별세, 이건열(동국대 야구부 감독) 씨 장모상 = 12일, 경기도 고양 동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5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30분, 031-961-9400
- ▲김신자 씨 별세, 조재형(전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사무국장) 씨 모친상 = 11일, 부산 범천시민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3일 오전 10시 30분, 051-636-4444

윤기영의 미래토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

기업의 소유주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가 안전하게 머물러 있던 성공의 함정에서 과감하게 뛰쳐나가야 한다. 과거의 오른팔과 왼팔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유창성이 있으면서 지적 겸손함이 있는 임원에게 그의 오른팔 정도는 내줘야 한다. 전환의 시대에, 탈바꿈의 시대에, 변혁의 시대에, 그런 용기와 감성은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필수 역량 ‘디지털 유창성’

〈流暢性〉

기업의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청년 시기의 군 입대이며, 신대륙으로 향하는 메이플라워호다. 디지털 전환은 불확실성을 가지며, 단기간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시행하고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자마자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임원은 가급적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늦추기 바란다. 심지어 NIMTO(Not In My Term Office, 내 임기 안에는 안 된다)를 보여주기 십상이다. 2~3년 임기의 임원에게 중장기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이다. 현재 임원의 입장에서 자기 임기만 잘 버티면 되며, 디지털 전환은 다음 임기의 임원이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과 임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은 빈수레 같이 소리만 크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언택트와 온택트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을 향해 100미터 달리기 하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

자 사티아 나델라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걸릴 디지털 전환,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거나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디지털 전환의 시늉을 내는 데 그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공리에 이 거대한 여정을 진행하려면,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의 임직원은 디지털 유창성을 높여야 하며 지적 겸손함을 단련해야 한다. 디지털 유창성은 디지털 기술의 개념과 가능성과 한계 등을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적 겸손함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쉽게 받아들이며, 불확실성에 기만하게 대응하게 하는 능력이다.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은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경쟁력, 디지털 유창성, 디지털 역량으로 나뉜다. 디지털 문해력은 비판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검색하는 능력과 멀티미디어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경쟁력은 멀티미디어와 스프레드시트 등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역량은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 유창성이 디지털 기술의 개념과 가능성, 한계 및 기술 성숙도 현황 등을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와 전략에 접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이들 능력은 공통분모가 없지 않으나 명료하게 나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유창성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임직원, 특히 임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개인적 경험이겠지만, 적지 않은 기업 임원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정도로 낮다. 즉, 디지털 유창성이 매우 낮다. 디지털 유창성이 낮은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면 나침반과 지도 없이 바다를 항해하겠다는 것과 같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세 번째 가을이 도래하는 이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절한 인공지능 개발팀이나 도입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블록체인이 가진 긍정적 측면과 기술적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수 없다. 저궤도 위성 기반 무선 인터넷의 의미와 발전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의 차별적 경쟁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없다. 디지털 유창성이 없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동환적 상상력으로 판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며, 기술의 성숙 현황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국경을 디지털이라는 고속도로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실리콘 밸리와 오즈마 펀드의 벤처기업에 안방을 내줘야 할 것이다.

기업의 소유주는 그간 유지해왔던 인적 관리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가 안전하게 머물러 있던 성공의 함정에서 과감하게 뛰쳐나가야 한다. 이제 기업의 소유주는 과거의 오른팔과 왼팔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유창성이 있으면서 지적 겸손함이 있는 임원에게 그의 오른팔 정도는 내줘야 한다. 전환의 시대에, 탈바꿈의 시대에, 변혁의 시대에, 그런 용기와 감성은 갖추어야 한다. 이는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전우들,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전정일의 식물과 함께 하는 시간

신구대 원예디자인과 교수·신구대식물원 원장

옛그제 입동이 지났습니다. 얼핏 보기에 날씨가 추워져 한가로울 것 같은 식물원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분주한 정도로 봤을 때 일 년 중 가장 바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기억력이 나쁜 탓에 지난 일을 쉽게 망각하는 저는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이 봄이 가장 바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식물원은 일 년 내내 바쁘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입동에 식물원이 바쁜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이른 봄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지금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물원의 이른 봄을 대표해주는 화사한 튤립은 원산지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여름이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원산지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름이 아주 습하기 때문에 알뿌리를 그대로 땅속에 두었다

가는 모두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원에서는 봄에 꽃을 보고 난 튤립 알뿌리를 모두 캐내서 그늘에서 잘 말려두었다가 초겨울에 다시 심곤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마늘도 같은 원리입니다.

입동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진 절기로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입니다. 24절기를 ‘음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24절기는 지구의 공전에 따라 태양 각도가 달라지는 것을 측정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양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의 기준이 되는 양력과 다른 양력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것뿐입니다. 입동 이후로는 태양의 복사량이 점점 줄어들어 날씨가 점점 추워지게 되기 때문에 온대 지방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사람들도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매년 이맘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을 테고 그것이 누적되어 전통이 되었습니다.

입동에 가장 먼저 해온 일은 감장입니다. 입동을 전후해 5일 내외에 담긴 감치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감치를 시원하고 맛있게 해주는 것은 잣산균의 활동

때문인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류코노스 특균이 있는데, 이 균은 5~7°C에서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 기상청이 발표한 1973년부터 2019년까지 47년간의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입동의 평균 최저기온은 5.5로 정확히 감치가 맛있어지는 온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사도 지냈는데 안전한 농사를 기원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시루떡과 약간의 음식을 준비해 곡식을 저장하는 곳간이나 외양간 등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고사를 지낸 후에는 고사 음식을 농사철에 고생한 소에게 주고 이웃 간에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때 시루떡은 팔시루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팔에는 인과 칼슘이 풍부해 진통과 해열에 효과가 좋고 이노 작용을 도와주어 부종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에 지친 몸을 보호해주는 과학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식물 관려해서 ‘입동 전 보리 씨에 흙먼지만 날려주소’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보리 파종의 시기에 대한 속담으로, 앞에서 예로

든 툇립이나 마늘처럼 보리도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파종해야 합니다. 늦어도 입동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보리 파종을 놓쳐서는 안 되고 흙먼지만 날리는 수준이라도 파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좋은 아빠가 되어보겠다고 아이 손을 잡고 주말농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입동 바로 전 절기로 서리가 내린다는 의미의 ‘상강’이 있습니다. 상강 전에 고추를 모두 수확하고 고추 농사를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해에는 상강이 주중에 들어있었습니다. 상강 전주 주말에 밭에 가서는 다른 일로 바빠 고추를 수확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상강을 지난 바로 그 주말에 다시 밭에 갔을 때는 전주까지 싱싱했던 고추가 모조리 상해버려 아이가 크게 실망했던 눈빛이 떠오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바로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추석에 못 뵈 어머니를 이번 주말에는 찾아뵈어야겠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때맞춰 할 일이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전태일 명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평화시장에서 봉제노동자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분신하였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청계천 6가의 ‘버들다리’ 위에 그의 정신을 기리는 반신 부조가 설치되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48~1970.

☆ 고사성어 / 난의포식(暖衣飽食) 따뜻한 옷에 음식을 배불리 먹음. 생활에 부자유스러움이 없음을 뜻한다. 출전孟子(맹자)滕文公篇(등문공편). 등문공이 정전법(井田法)에 대해 묻자 맹자(孟子)의 대답. “사람에게 도(道)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지라도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까워지게 된다[人之有道也 飽食煖衣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 시사상식 / 시급남편(時給男便) 시간당 1만5000~2만5000원을 받고 남편 역할을 대신 해주는 대형 서비스. 30~40대 ‘골드미스’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결혼식이나 동창회에 남편을 대신해 동행해주기도 하고 수도꼭지나 형광등 교체, 전자제품 설치 등 잡다한 가사를 도와주기도 한다.

☆ 신조어 / 신박하다 ‘신기하다+대박이다’의 합성어. 신기하면서 놀라는 느낌을 전할 때 매우 찬사하라는 뜻으로 쓴다.

☆ 유머 / 화 가리우려는 법 집 주변을 하염없이 도는 남자를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 세월이 흘러 남자는 부자가 되고 노인이 되었지만 화가 나면 예전처럼 자신의 땅 주변을 돌았다. 궁금한 손주가 이유를 묻자 할아버지의 대답. “젊을 때는 내 땅이 이렇게 작었는데 화날 시간이 어디 있나 생각하면 화가 가리우셨지. 지금은 내 땅이 이렇게 큰데, 왜 싸우냐고 생각하면 바로 화가 풀린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정수천 사회경제부/int1000@

‘정치인 윤석열’ 만드는 정치인 추미애

특히 이제 추 장관과 여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종용하고 정치판으로 끌어내려 한다. 검찰이 정치의 영역이 된 가장 큰 원인을 추 장관이 제공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찰 인사를 비롯해 ‘검사 커밍아웃’ 사태 등을 통해 꾸준한 편 가르기를 했다. 검

들린다. 추 장관이 공격하면 검찰이 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실제 윤 총장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떠나 추 장관의 조치에 담긴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늘어났다. 차기 대권 주자 ‘정치인 윤석열’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인 추미애가 ‘정치인 윤석열’을 만들고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윤 총장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추 장관과 여당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비판이 많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추 장관은 그간 윤 총장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역사에 남을 세 번의 수사지휘권 행사 중 두 번이 추 장관 손에서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설전을 벌인 이후에는 연일 윤 총장에 대해 검찰 지시를 내리고 있다. 추 장관의 전방위 압박에 윤 총장에게 불만을 가졌던 검사들마저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도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신약개발 꿈 이루려면

배진건 이노큐어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

“임상의 유혹 벗어나 실패를 쌓자”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노력이 밑바탕이 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으로 실패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가성비’와 ‘효율성’,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에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숙제일까.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신약개발,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임상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은 신약개발의 꿈을 멀어지게 한다. 신약개발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배진건(69) 박사가 말하는 신약개발 성공을 위한 조건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임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실패를 쌓아가는 자세만이 신약개발의 꿈을 다가가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약개발 외길을 걸어온 배진건 이노큐어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정보공유 효과

경기도 성남시 이노큐어테라퓨틱스에서 3일 만난 배진건 박사(이노큐어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에 또 한번의 변곡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박사는 1986년부터 23년간 미국 레딩프라우 연구소에서 알레르기·염증, 중앙 생물학 분야 수석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2008년 귀국해 중외제약 연구개발총괄전무·C&C 신약연구소 대표, 한독 연구개발 상임고문(2011), 한국아브노바 연구소장(2016), 우정바이오 고문(현재) 등을 거치며 끊임없이 신약개발에 매진해왔다. 이노큐어테라퓨틱스는 현재 표적단백질 분해 기술인 프로탁(PROTAC)을 이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귀국 후 그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폐쇄적인 분위기였다. 그는 “가장 의아했던 업계의 모습은 협업하지 않는 것이었다. 후보물질 하나를 정할 때도 비밀리에 진행했다. 화학, 바이오 등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업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탄생할 텐데 비밀이 썰까 봐 서로 공개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런 폐쇄적인 분위기는 2011년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출범 후 달라졌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했다. 후보물질 단계부터 임상시험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했고, 기초 분야의 학회 및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산학연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배 박사는 이때부터 꼭꼭 숨기던 것을 오픈함으로써 대한민국 신약개발이 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본다. 그는 “범부처 사업단을 통해 협력한 뒤 기술수출 사례가 늘어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출범 후 9년간 지원한 162개 과제 가운데 49개가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총계약 금액은 약 13조 원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에 길 있다” 학원 강의라도

폐쇄적인 문화에서 협력의 문화로의 전환은 이뤄졌지만, 배 박사는 신약개발 성공을 위해 또 다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바로 ‘인력의 벽’이다. 그는 지난해 쓴 저서 ‘사람을 살리는 신약개발’에서 “신약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박사가 말하는 기본은 ‘Biology, Analysis, Science, Innovation, Chemistry’의 첫 글자를 딴 ‘BASIC’이다. 생물(Biology)과 화학(Chemistry) 양대 축이 기둥으

기본으로 돌아가자

생물B·화학C 양축, 중심에 과학S 분석A·창의I로 연결 BASIC 강조 개발인력 부족 극복이 가장 시급

협업이 성과 낚는다

비밀 썰까봐 쉬쉬, 폐쇄적 분위기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2011년 출범 후 기술이전 등 성과

사람을 살린다는 철학

더 높은 약값, 하루빨리 허가...

이런 계산하면 실패할 수밖에

‘환자의 생명’ 목표 있어야 버티

로 버티주고, 기둥의 밑바닥은 과학(Science)이 든든하게 받쳐주며, 연구·개발의 동향, 현재 상황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Analysis)하고 창의적인(Innovation) 사고가 곳곳에 스며 있을 때 신약개발이라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그는 “그간 바이오 기업은 참 많아졌는데 임상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개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보물질을 찾는 연구를 넘어 임상에 들어가기 전 임상 물질을 만드는 등 충분한 개발 경험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 박사는 “인재 수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노동 같지만 대치동 학원에서 강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바이오, 화학 분야에 매력적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줘 이 분야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K진단기술, 신약개발 임상 활용해야

코로나19 확산 이후 K방역·K바이오의 활약은 국내 업계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배 박사는 진단키트 경쟁력을 신약개발로 이어가기 위해 우수한 진단기술을 임상시험에 활용하는 ‘협업’이 강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박사는 “K바이오 위상, 진단부분의 경쟁력을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진단키트는 사

이들이 빠르게 변해 벌써 단가가 떨어지고,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진단키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을 찾기가 어려운 분야가 되고 있다”며 “우수한 진단기술을 임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약개발에서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큰데 그래서 진단회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박사는 메디팩토와 테라젠이텍스 사례를 들었다. 유전자 분석·진단 전문기업인 테라젠이텍스는 2013년 기업 분할 방식으로 항암 신약 개발기업 메드팩토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신약개발에 필요한 바이오마커를 선별하고,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협업해 비용을 절약하고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배 박사는 “메디팩토가 테라젠이텍스의 도움을 받아 신약개발을 하는 것처럼 진단 기술을 활용해 유전 정보를 가려내고, 임상시험에 필요한 기술을 활용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케스트라 해야 하는데 ‘현악4중주’

길고 험난한 신약개발의 A부터 Z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협업’이었다. 배 박사는 “신약개발은 한마디로 오케스트라다. 지휘자가 있지만 각자 전문 분야에서 제대로 음을 낼 때 화음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신약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때 신약개발의 꿈이 가까워진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현악 4중주에 불과하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모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약개발에 대한 마음가짐도 강조했다. 배 박사는 “약값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것,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먼저 계산하고 신약개발을 시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길고 긴 여정을 걸어가려면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철학과 목표가 있어야 버틸 수 있다”며 “간혹 어렵게 들어간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간 들인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서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어떻게든 가능하게끔 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임상의 유혹’인데 그걸 떨쳐버려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내 노력이나 희생이 밑바탕이 돼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으로 실패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시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한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에 서명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더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FTA다. 역내 무역규모는 10조 달러가 넘어 유럽연합(EU)을 웃돈다. 공식 출범은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태평양 지역의 공동체적 경제질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과 함께,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 등의 새로운 규범 적용과 인력이동 확대로 경제와 무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한 경제질서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역내 경제블록을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참여가 현안이 되고 있다. TPP는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원래 2006년 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의 4국(P4)의 협정으로 시작된 후 미국을 비롯한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페루가 가입해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6년 TPP를 탈퇴했다. 전체 회원국 경제

규모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져 나가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으나 일본이 포괄적·점진적(CP) TPP로 살려내 2018년 3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조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취임 이후 곧 TPP 재가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TPP 재협상을 공언했고, 동맹 재구축과 다자주의 협력, 규범 중심의 통상질서를 강조해왔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을 강화하는 기조에서 반중(反中) 구도의 TPP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다.

TPP는 기존 FTA가 상품·투자·서비스의 개방에 주안점을 두는 차이를 넘어 단일시장으로서의 경제블록을 추구한다. 상품 및 각종 서비스의 모든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와, 금융·외환·투자의 완전 개방, 인적 이동 자유화 등을 통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외지향적 개방경제 국가인 한국으로서 다자간 경제블록 참여는 시장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의 TPP 참여는 농업 등 피해를 보는 분야가 없지 않으나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협상전략과 함께 외교력의 강화가 시급하다. TPP의 통상질서가 RCEP와 대립적 구도로 가겠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 호주 및 뉴질랜드 등 RCEP 회원국 상당수가 TPP에도 동시 가입하고 있다.

영화로 보는 세상

별을 보면 삶이 가벼워진다 ‘인터스텔라’



별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밤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반대로 ‘우주에 떠 있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인 별(지구)’을 상상하며 명상에 잠겨 본 기억은 있는가?

광대한 우주에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을 생각하면 우리 누구나 철학자가 되거나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조금 더 상상력의 날개를 퍼보자.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별이 있을까? 아마도 인류가 살 수 있는 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아직도 무한 확장하고 있는 광대무한한 우주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딱 지구 한 곳이라면 칼 세이건의 말마따나 그것은 ‘공간의 엄청난 낭비’가 될 것이다.

코로나 같은 질병이건 환경 오염과 기후 재난이건 더 이상 아름다운 푸른 별에서 살기 어려워진다면 우리 별들 사이에서(Inter-stella) 우리가 살 수 있는 별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가 높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지구를 떠나야만 하는 재앙 앞에서 인류를 구하는 이야기를 꽤나 희망적이고 철학적으로 영

화 ‘인터스텔라’에 담아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였던 쿠퍼(매튜 매커너헤이)가 지구에 몰아친 식량난으로 인류가 새롭게 이주할 행성을 찾는 나사의 우주선에 탑승하면서부터 이대서사시는 시작된다. 이 우주탐험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중요한 서사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우주 공간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 7년쯤 된다는 논리는 그만큼 지구에서 보낸 시간과 보낼 시간을 절박하게 만든다. 마침내 ‘시간의 오작동’ 초차 극복해낸 인류는 마지막 기밀 곳은 ‘타자와의 사랑’이라는 훈훈한 각성으로 환원된다.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4차원, 5차원 공간을 넘나드는 얘기지만 결코 머리 아프지 않다. 오히려 뜻하지 않게 마지막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공상과학도 때로는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지구를 떠나고 싶은 정도로 현실에 대한 환멸이 밀려올 때 이 영화는 당신의 가슴을 누르는 무게를 한껏 가볍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대한민국 1등 LG전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만나보세요

- 🏆 2020 국가고객만족도 가전 11개 부문 최다 수상
- 🏆 2020 기업 소셜임팩트 가전 4개 부문 1위
- 🏆 2020 '올해의 녹색상품' 의 최고 권위 '녹색마스터피스상' 수상
- 🏆 3대 디자인 어워드 'IDEA 2020' 10개 수상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별전
2020. 11. 1 ~ 11. 30

- [행사 1]** TV, 냉장고, 세탁기 등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모델 특별전
 - [행사 2]**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별전 행사 모델 구매고객 경품 추첨 이벤트 (2,020명)
 - [행사 3]** LG 오브제컬렉션 3품목 이상 동시 구매 시, 최대 200만원 혜택
- 상기 제품 이미지는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1등 수상 부문 제품 및 워시타워, 스타일러의 대표 모델로 구성됐으며, 행사 모델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특별전 행사 모델 구매고객 경품 추첨 이벤트는 LG전자 멤버십 앱을 참조하세요
 - 본 행사는 행사 참여 모델에 한하며, 모델 및 혜택은 매장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판매 매장에 문의해주세요